JAN 1 8 ...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15-716 1982년1월7일(목) 8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7, Friday, 8, January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잡음없이 끝난 노년회 선거

회장에 조영호여사

412표중 246표 얻어

◇투표직전 최언필씨의 소개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있는 조영호회장팀 왼쪽부터 최씨, 김대보·성용창 부회장, 조회장.

살을 에이는 듯한 영하의 차거운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회장단 선출을 위해 무려 460회원이 집결한 노년회 총회장은 열기로가득 찼다.

2일 하오 2시 노년회는 윈스턴 처칠고교(2239 Lawrence Ave. E.)강당에서 앞으로 2년동안 노년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단으로 조영호회장, 김대보부회장, 성용창부회장을 뽑았다.

노년회는 당초 한인회관에서 하오 1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예고없이총회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사전에 소식을 듣지 못한 회원들에게 다소 혼잡을주었다.

상오 11시부터 시작된투표용지배부는 일일이 선거인명부와 대조 선거직전까지 계속됐다.

이날 총회에는 선거유자격회원 610명의 67%인412명과 선거자격이 없는 회원 50여명이 관람, 총 460여명이 참석했다. 선거자격은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개표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노년회원들.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이번선거는 예년과 달리 잡음이 덜했다.

김근섭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북미주를 순회공연중인 염광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의 노래선사로 시작됐다. 선거에 신경이 곤두선 회원들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이 합창단을 위해 노년회는 즉석에서 $394.45을 모금했다.

정인기전회장의 개회사, 노년회간사의 회의록 낭독에 이어 의결사항으로 박성교 부회장의 회무보고, 장사옥감사의 감사보고및 사업보고가 있었다.

30분 휴식겸 다과후 81년도 세출입 결산보고, 82년도 세출입 예정안및 사업예정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지리하게 길어지는데 싫증과 불만을 가진 회원중 하나가 선거를 먼저 하고 결산예산보고는 임시총회를 소집, 처리하라는 안을 내자 대부분의 회원이 이에 동의, 선거가 시작됐다.

먼저 양후보들의 선거공약발표가 있었다. 처음 등단한 박학수후보는 공약으로 노년회의 재단법인 추진, 주소록작성, 문고설립 회비 인하및 회비 미납 회원에 투표권 부여등 여러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박후보는 현집행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조후보를 지지했다고 흥분, 언성이 높아 지기도 했다.

이어 등단한 조영호후보는 차분한 음성으로 "정부관계사무처리신속, 주소록작성, 회원친목, 인화에힘쓰겠다고 간절히 말하고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오 3시20분경 투표가 시작되자 회원들은 한꺼번에 기표소에 몰려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회원들이 초조히 기다리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과 양측 참관인들은 개표를시작했다. 몇번의 신중한 검산을 거쳐 하오 4시30분경 개표결과가 발표돼 총 412표중 박후보 151표, 조후보 246표, 무효 5표, 기권 10표로 판정됐다.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등단한 조후보는 낙선한 박후보를 불러 우호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했다. 박후보는 낙선소감으로 "짐을 벗은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다. 낙선에 관계없이 계속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조후보는 당선소감으로 "여러분의 협조없이는 나혼자 해나갈수 없다. 나는 다만 여러분의 심부름꾼이니 할 수 있는데까지 부려달라"고 말해 회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부분 회원들은 신, 구회장단 인사와, 만세 삼창이 있기전 개표결과만 보고 성급히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노년회선거는 예년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끝났지만 회비를 낸 회원수가 한달사이에 2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늘어났다.

조 신임노년회장은 1909년 서울에서 출생, 근화여학교 나와, 공화당 중앙위원등 역임했고 71년 캐나다 이민후 노년회 이사, 부회장, 회관관리위원, 고문등 오랜동안 노년회에 몸담아왔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영사관서 여권 갱신

여행자유화 후속조치

81년8월1일 이전의 여권 대상

토론토 총영사관은 1982년 1월1일부터 교포여권을 비롯한 각종 여권을 전면갱신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새해부터 실시되는 여권갱신 발급은 정부가 1981년 8월1일부로 해외 여행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1981년8월1일이전에 발급된 모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여권발급 신청을 접수 하는데 여권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거주 복수여권
(1) 호적등본
(2) 영주권
(3) 구여권
(4) 신여권 발급 신청서
(5) 신원 확인서 3매 (영사관 비치)
(6) 여권용 사진 3매 (칼라사진 무방함)
(7) 수수료 20달라(미화)

▲일반 여권
(1) 구여권
(2) 신여권 발급 신청서
(3) 신원확인서 3매 (영사관 비치)
(4) 사진 6매
(5) 수수료 미화60달라 (유학목적 20달라)
(6) 여행목적 증빙서류
○취업 : 재직증명서
○동거 : 동거자의 국외체재 증명서류및 호적등본
○기술훈련 : 연수증명서
○상용주재 : 재직증명서
○문화주재(교환, 파견교수, 특파원) : 재직증명서
○유학 : 입학허가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이다.

이번 여권갱신의 전면실시에 따른 특징으로는 일시귀국 신고제가 폐지되고 19개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여행국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거주 복수여권 신청시 구비되어야 할 호적등본은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기타의경우에는 공관장 재량에 맡겨 필요에 따라서는 호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1981년 8월1일이전에 발급된 방문목적의여권및 일반인의 단기 학술연수 목적의 여권은 계속체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공관장 재량으로 갱신발급및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하나, 81년 8월1일 이전에 발급된학생의 단기 학술 연수목적의 여권은 갱신 발급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 81년8월1일이후 발급된 방문, 단기 학술연수, 관광 목적의 여권에 대한 갱신 또는 기재사항 변경도 불가능하다.

총영사관은 또 거주 목적의 단수여권및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이며81년8월1일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단수 여권은 복수여권으로 간주해 82년 7월31일까지 수차 출입국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단수여권 소지자가 귀국하는 경우 효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되나 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기간연장등 기재인하을 허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1월1일부터 해외공관에서 실시되는 여권갱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토론토 총 영사관(☎(416) 598-4608)으로 하면 된다.

社告

위니펙 행사를 마치고

세모를 맞아 본사가 주선한 위니펙봉제사 위문공연을 뒤밀어 주시고 직접 위니펙까지 동행해주신 교민 제위와 위니펙의 여러 협조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업상 토론토와 위니펙 두 도시 친선의 가교역할을 겸한 이번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했던 것은 협찬기관및 업체, 권순근악단과 사회자 호세환씨, 가수 박소영, 박수연양의 헌신적 봉사, 위니펙 한인화관계자들, 그곳 이영선 목사 유중서 목사를 비롯한 두 교회 교인들의 협조와 여기에 봉제사 자신들이이번 행사의 참뜻을 이해,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행사의 재정적명세를 밝히는 바입니다.

미수금이 회수 되는대로 잔액 $885.31를 봉제사를 위한 은행특별구좌에 적립, 앞으로 그들 전체를 위하는 일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 수 입

성금(추가)	
12월25일현재누계 (이영현씨 분 제외)	$3,245
오타와한국대사관	$500
케네디꽃집	$100
한인장로교회	$100
순복음교회 이필주목사	$100
총 계	$4,045

기증품(추가)

신세계여행사 : 위니펙↔토론토 왕복비행기표 1매
한국일보사 : 파티용 한복1벌(디자이너 이리자여사 작품)
한국일보 1년 구독권3매

◇ 지 출

항공료(악단, 가수 6명) $249 × 6 =	$1,494
식사대	$331
호텔비	$221.19
상 패	$158.50
악기대여비	$105
기타(전화, 렌트카, 잡비)	$250
광고료	$600
총 계	$3,159.69

◇ 잔액 $885.31

(항공료는 권순근 악단 4명과 가수2명을 제외한 본사직원및 각 교민들은자비부담이었음.)

한국일보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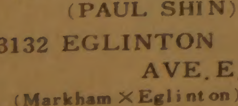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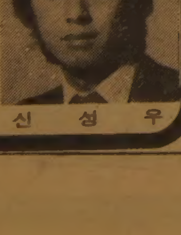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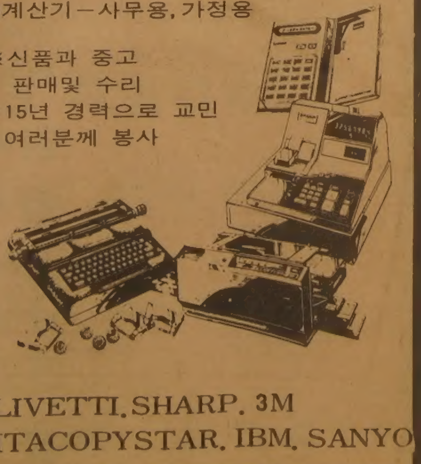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554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해외주둔 미군 총 61만

주한미군 38,200명

1981년말 현재 미군의해외주둔 병력은 80년말에비해 1만1천860명이 늘어난 51만4천55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미국방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해외주둔병력이는 곳은 중동지역으로 6천여명, 그외에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지역에도 상당한 병력이 늘었다.

가장 많은 병력이 나가있는 유럽의 경우 81년 한해동안 5천7백명의 병력이 증강, 81년말 현재33만7천4백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중 서독이 4천2백명인 증강된 24만8천5백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8백명이 줄어들어 총 2만5천1백명, 이탈리아(1만2천2백), 스페인(8천7백), 터키(5천1백), 그리스(3천3백), 아이슬랜드(2천8백), 네델란드(2천5백), 벨지움(2천1백), 폴투갈(1천4백), 기타지역(7백)순으로 되어있으며, 유럽지역을 맡고 있는 제6함대병력은 2천7백명 증강에 현병력 2만5천명이 유지되고 있다.

태평양지역은 1만1천명 증강에 현병력 13만5천4백명.

일본및 오끼나와 지역이 2백명 증강에 총 4만6천2백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5백명 감소로 현병력은 3만8천2백명이다.

한국 다음은 필리핀(1만4천5백명), 괌(8천8백명), 오스트랄리아(7백명), 미드웨이(4백명), 기타국가(1천2백명)로 돼있다.

중남미는 3백60명 증원에 총 1만5천350명.

파나마가 81년중 6백명 증원으로 현 9천6백명이나 가있고, 푸엘토·리코(3천5백명), 과테말라(2천2백명), 엘살바도르(50명) 등의 순으로 돼있다.

기타지역에는 버뮤다(1천3백명), 디에고가르샤(1천5백명), 이집트(2백명), 캐나다(7백명), 기타 1천2백명과 해군이동함대 병력 2만8백명이 해외주둔 병력에 편입되고 있다.

김지하 시인 "연꽃상"수상

◇김지하시인

(서울=연착)유명한 시인 김지하씨가 지난달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연꽃상"(Lotus Prize)를 수상, 12월2일 하오6시 원주카톨릭센터에서 수상식이 가졌음을 근착 〈가톨릭신문〉이전했다.

이날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전달한 "연꽃상" 수상식에는 김시인의 변호인단이었던 홍성우, 황인철변호사등과 가족 친지 성직자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김시인이 수상한연꽃상은 그가 수감중이던지난 75년 결정됐던 것으로 6년만에 전달된 셈이다.

김지하씨는 이날 상장과 금컵의. "여꽃사"수상과 함께 오스트리아 수상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인권상」과 부상 10만 실링(한 화 500만원 상당)도 받았다.

안두희, 미국이민 안된다!

반대투위, LA이민국앞서 시위 주한 미대사관등에 진정서

(LA지사) 안두희 미국이민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이원모)는 23일 정오부터 약 1시간동안 LA이민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투쟁위원장 한피동씨를 비롯, 각대학의 대학생 대표들과 기념사업회 회원등 10여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는 「김구선생을 살해한 안두희의 이민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한편 동위원회가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진정서는 안두희씨의 백범저격사건 배경을 약술하고 그가 당시의 죄과를 공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도록 진정했다.

한국일보

남한인구 4천만

매51.8초에 1명증가

(서울 31일=연합) 남한의 인구는 81년12월31일자 정현재 39,029,339 명이라고 경제기획원이 발표했다.

남녀별로 본 인구는 남성 19,693,759명, 여성 19,335,580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34.8초마다 신생아가 탄생했고 123.3 초마다 한사람씩 죽었다. 결과 51.8초마다 1명씩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지난달 제1회 코리안컵 볼링대회에서 563점으로 개인전 1위를 차지한 문덕래선수(오른쪽)가 정용필 한인볼링협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받고있다. 볼링협회주최, 본사가 후원한 이 대회에서 문씨는 핸디 66으로 핸디부문서 김동천씨와 공동1위를 차지했다.

〈새로 나온 책〉

박희민 목사 설교집 「성장하는 생활」 「4계절의 설교」

◇박희민 목사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담임 박희민목사가 신간 설교집 2권을 펴냈다.

하나는 한국에서 출판한 「4계절의 설교」로 "창조적인 소수자", "세상의 소금"등 20편의 설교를 묶어 국판 339면으로 보이스사가 펴냈다. (값 3천원)

다른 하나는 토론토 비둘기식자인쇄소 발행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새로운 삶의 비결"등 31편의설교를 모아 국판 235면 $7.

중후하고 차분한 설득력으로 독자들을 감화시키고 있는 박목사의 지상설교는 전도, 구원의 길잡이가 될뿐 아니라, 현실생활의슬기와 차원높은 처세의 길을 일깨워 주는 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하겠다.

얘기의 샘

告白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한 청년이 어제밤에 이쁘한 상대를 강제로 욕을 보여서 몹시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놓았다. 로맨스그레이인 의사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신경쓸 것 없어요. 한예, 그 여자가 자살이라도 할 것같이 보이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엔 저항하더니만 나중엔 즐거워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렇담 당신이 괴로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빠가 가만안 있을거」라면서 울었단 말입니다.」

「바보같이! 아, 소위 청춘이란게 부모때문에 걱정하다니!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아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까짓 일로 딸애를 꾸짖는 부모가 있단 말이요. 그런 사람 한번 보구 싶구먼!」

그 찰나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 살았다! 실은 그 여자는 바로 선생님 딸이에요!」

제5계절

장난감이 주는 교훈

김숙희 (씨알학교 부교장)

◇김숙희 씨

아이들이 졸라대는 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저녁 설겆이를 끝내자마자 우리 네식구는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주사위를 던져서 말판에 그려놓은대로 따라가며 지시한대로 좇아가면 된다.

그중에서 우편함을 열어 여러가지 청구서를 꺼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곳도 있고, 보험에 가입되었다가 이익을 보는 곳도 있고, 공공사업에 기부금을 내야되는 곳도있는 등등으로 이곳 사회생활을 그대로 말판에 그려놓은 게임이다.

물론 아빠가 일등을 하고, 5학년된 아들이 2등, 4학년인 딸이 3등, 그리고 엄마는 꼴등을 하게 되었다.

온 식구가 함께 게임을 하니 참 재미있다고 좋아하는 딸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마음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있었다.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나는 작은 오빠가 만들어 놓은 말판 놀이를 종종 하였었다. 오빠가 만들어 놓은 말판에는 육, 해, 공군이 있었고, 육, 해, 공군은 제각기 자기의 길로만 가야하는데, 우리편은(내 군인들) 언제나 오빠의 군인들에게 잡혀 먹혀, 어머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맛있는 박하사탕들을 다 뺏기곤 했었다. 그리고나면 언제나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오빠를마냥 미워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윷놀이를 해도 그렇다. 윷가락을 던져서 윷판위에 말을 열심히 올려놓으면 뒤에 쫓아오는 편이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잡아먹고, 잡아 먹히고, 이것이 내가 자랄때 하던 놀이들이다.

그렇지만 이곳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들은 그렇지 않다. 주사위를 던져서 다른 사람과 같은 수가 나와도 밀어내지 않는다. 제한된 땅이라도 같이 머물러 있다가 각자가 굴리는 주사위의 운(능력)에따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다.

남이 먼저 간다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땅에 나란히 서있다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내가 던지는 주사위는 나의 운이요, 판단은 나의 능력이다. 주사위를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얻기만 바란다. 남에게 잡힐 걱정도, 남을 밀어내려는 고약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빠의 장난감 군인들에게 잡히어 죽어가는 내 군인들의 불쌍한 기억을 간직할 이유도 없고, 교묘히 기교를 부리던 오빠를 미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의 목표라면 나는 무엇을 목표로 교육을 받았단 말인가? 내가 살고 있었던 사회에서 나에게 주려했던 목표는 무엇이었던가? 아이들의 지능개발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내는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고, 우리가 받아온 교육과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방법을 비교하여 나쁜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빨리 배우도록 노력해야 되리라 믿는다.

흔히 우리 부모님 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녀석,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하며 우리들이 받았던 교육방법을 이곳에서도 실현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교육을 받고있는 우리 2세들에게는 "무조건"이란 통하지 않는다.

비록 말대답은 않는다더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왜?"(Why?)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재치와 능력이 우리 이민은 부모들에게는 있어야 되리라 믿는다.

아빠에게 물건을 드릴때 두손으로 드리지않아 야단을 들은 어린이가 그 다음 기회에 재털이를 아빠에게 내밀면서 "자! 두손이다, 받아라."했다던 이야기는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두손으로 드리는 우리나라의 예의를 미리 이야기해 주었던들 그 아빠는 아이로부터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이곳의 풍습과 부모님들이 가지고있는 한국적인 풍습에서 마찰을가져온다. 아이들에게 한국적인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에 노력하는 만큼 우리들은 이곳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 안다.

이곳 놀이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의 길은 내 능력으로 개척하고, 내가 해야할 의무를 다하며, 사회에 협조하고, 남을 밀어내거나 해치치 않고, 자기의능력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중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2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 구김없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행안내〉

KAL, 뉴욕공항간 헬리콥터 연결 ③

김창범 (신세계여행사 대표)

◇김창범 씨

(2) JAL

일본항공은 CPA와 동일한 과정을 경유하게 되는데 토론토-뱅쿠버 구간을 Air Canada를 이용하게돼 있고 동경에서 반드시 일박하고, 다음날 일본항공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서울에 갈때는 동경에서 반드시 일박하고, 다음날 일본항공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일본항공은 뱅쿠버 또는 칼가리에 찾아오는 일본관광객으로 연중만원이다. 항공시간은 CP와 비슷하다.

(3) KAL

대한항공은 뉴욕 경유와 LA경유 두가지 노선이 있다. 뉴욕은 화, 목, 일요일의 주3회이며, LA는 월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떠난다.

(가) 뉴욕경유

○출발편

토론토 → 뉴욕※ 뉴욕 → 서울
AC778 → (라과디아공항)→(JFK공항) → KAL007
18:40 20:00 23:30 07:10 (2일추가)

※노선의 경우 뉴욕에서 라과디아공항에서 짐을 찾아 존·F케네디(JFK)공항으로 옮겨타야하는 불편이 있다. 보통 버스로는 약 30분 걸리므로 두시간이상의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하나, 이제는 10분밖에 안걸리는 헬리콥터가 매시간 있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짐을 한개로 규제한다.

○도착편

서울 → 뉴욕※ 뉴욕 → 토론토
KAL008 JFK공항→ 라과디아공항 AC774
19:00 21:10 10:00 11:16

※돌아올때는 저녁에 도착하므로 뉴욕에서 일박해야 한다. 물론 숙식비는항공사가 부담한다. 공항과 공항 사이는 갈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로 연결할 수 있다.

(나) L.A경유

○출발편

토론토 → L.A. → 서울
AC793 KAL015(앵커리지 경유)
17:45 19:50/22:40 07:20(2일 추가)
KAL005(호놀룰루 경유)
20:50 → 07:30(2일 추가)

○도착편

서울 → L.A → 토론토
KAL006(호놀룰루 경유) AC790
20:40 18:55 / 08:15 15:40
KAL012(직행) AA196 + AA160(시카고 경유)
20:40 14:30 / 0030 09:10

L.A를 경유하여 돌아올 때는 L.A에서 하룻밤 쉬고 오려면(이때 숙박비는 본인부담) 대단히 편리하나 당일로 돌아오려면 시카고를 경유하여 밤비행기를 타고 이튿날 아침에 돌아오게 된다. 물론 짐을옮길 필요는 없으나 LA에서 약 3시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과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다.

(4) 각 노선의 비교

대한항공으로 뉴욕을 경유하려면 이민여권이나 교포여권의 경우 미국 경유비자, 즉 C-1 Visa가 있어야 한다. 흔히 영구비자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Canadian Boarder Crossing Certificate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어가고 나올 때만 효력이 있는 일종의 통행증같은것이므로 미국을 경유하여제3국을 가거나 제3국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경유비자를 얻어야 한다. 참고로 한가지 부언하면 이 통행증은 한국여권의 시효가 경과하여도 미국을 방문할 때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LA를 경유할 때는 비자없이 갈 수 있으나 여권을 항공사에서 보관하여 LA공항에서 대한항공 직원에게 인계해 주고, 서울이 가까와올 때 여권을 돌려 준다.

이상의 노선과 시간표를 비교하면 한국만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각 항공의 장단점이 있다. CPA를 타는 경우 토론토공항과 뱅쿠버및 동경공항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어서 언어를 못하는 노인층은 불편하나, 한인여행자들이 많으므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경에서 일박할 경우도 같은 불편이 따른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동경에서 하루 쉬고 들어가는 것을 택하는 수가 많다. 그만큼 피로가 가신다고 한다.

미국을 경유하는 대한항공은 뉴욕경유로 떠났다가 LA를 경유하여 올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할 수도있다. 언어문제로 한국 항공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갈때나 올때 미국의 뉴욕이나 LA에 들리는데는 십상이다. 친척 또는 사업관계로 일거양득의 목적으로 이 로선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계속)

社 告

◇은세계에의 초대◇

초보자를 위한 스키강습회

때 : 1982년1월29일(금)~31일(일)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세넹
회비 : $180(1인당) • 개인별로가면 $280소요
※대절버스(그레이 하운드)(6:30 P.M 출발)
—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 2일간 스키 무료제공
—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 35명
신청서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돈 스포츠사(이건영 598—3732)

주최 한국일보사
브랜돈스포츠

◁바로잡음▷

"초보자를 위한스키강습회"「사고」중"때 : 82년1월 28일(목)~30일(토)는 "29일(금)~31일(일)"로 정정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연합부흥회**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 한진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 한진관목사(뉴욕퀸즈한인교회담임12년간)

일시 : 1982년1월13일(수)저녁~17일(주일)저녁

집회\일자	13일 (수)	14일 (목)	15일 (금)	16일 (토)	17일 (주일)
새벽기도	없음	없음	없음	오전6시30분	오전6시30분
낮 공 부	없음	없음	없음	제직세미나 오전10시~오후3시	없음
저녁성회	오후7시30분	오후7시30분	오후7시30분	오후7시30분	오후7시30분

장소 :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BOROUGH
MARKHAM RD와LAWRENCE AVE. E.에서 동쪽으로 약500m 지점 남쪽편)

문의전화 :
계화삼 목사(성산교회 977—5202), 김경진 목사(빌라델비아교회 281—5706), 장희선 목사(런던제일교회 519—686—6302), 정관일 목사(중앙교회 249—5461)
양세주 목사(반석교회 746—5010), 이정준 목사(가나안교회 742—0348), 차주성 목사(딕시교회 279—4356), 안병한 목사(갈보리교회 755—7979)

우리 단체의 업적과 계획 (2)

81~82년도 토론토 각한인단체 조감도

★토론토대학교한국학과후원재단(이사장 : 윤여화)

●업 적
①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가 본재단에 토론토 대학교 한국학과 설치후원기금으로 미화 10만달러 기부(4월)
② 토론토대학교 햄 총장 한·가 인사 120명 초청 리셉션 후원(4월)
③ 본재단 주최로 이대대학원생 초청 자수전 개최(8월)
④ 모국 문교부에 요청, 한국학관계 방문교수 초청(9월)
⑤ 모국 문교부장관 초청으로 토론토대학교 햄 총장 일행 한국방문주선(10월)
⑥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문공분과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산학협동재단등 기관을 방문,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 지원요청(10월)
⑦ 모국 문교부장관 수석자문위원 일행 토론토 내방시 정부 · 대학 · 각계 교육기관 방문 주선하고, 토론토 대학교 한국학과 후원협의(12월)
⑧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에 1,1000달러지원

●계 획
① 한국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강연회 개최(2회)
② 한국의 국제교육및 학술진흥단체와 협의, 토론토 대학에서 모국의 교사및 학생 초청강습 예정
③ 한·카 경제인협회및 한인사회에 대한 모금 캠페인 추진
④ 한국미술및 문화전시회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 함병섭)

●업 적
① 53개 업소 회원가입
② 한인회관 이전 적극추진
③ 주차장(56대 주차가능)신설(Christie St~Clington St.)
④ 8·15 교민체육대회 참가(입장상 수여)
⑤ 번영회 성탄파티(12월19일)

●계 획
① 주차장 확장 신설계획(Clington St.~Markham St.)
② 상도의 확립강화
③ 회원간 친목강화

④ 정기총회(1월16일)
⑤ 「한인의 날」 퍼레이드 행사 후원

★벡커경영인협회(회장 : 김병진)

●업 적
① 본사의 부당한 청구제도(Billing System)의 중지.
② 기본영업시간(상오9시~하오11시)을 원칙으로 하며, 그 가외시간은 딜러의 재량에 맡기고, 강요하지 않기로 본사의 약속 받아냄.
③ 본사의 판매상황 검사(Sale Check)강행계획을 중단시킴(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못하기로 약속됨. 단, 본인이 원할 때는 제외)
④ 신계약, 재계약및 재판매 스토아에 대해 81년 1월부터 로얄티(Royalty) 1%~2% 인상계획을 중지시킴.
⑤ 본협회 간부와 본사 다간 부사장과의 회담(9월10일)에서 임대주와의 리스에 문제가 없는한 계속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합의.
⑥ 밀크 마진을 13½~17%로 인상합의(8월1일)
⑦ 토·일·공휴일에 딜러에게 사전예고 없이 수퍼바이저가 회원 스토아에 무단출입의 금지약속.

●계 획
① 재조직 강화
② 회원의 법적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계속 추진
③ 법적투쟁에 대비한 협회기금 확보
④ 본사와 협회 상호상업 증진을 위한 수시교섭, 건의 내지 투쟁.
⑤ 월보발행 검토
⑥ 경영에 필요한 세무법률 상식, 특별세미나 실시.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지부장 : 이병권)

●업 적
① 제1회 8·15광복절기념 교민체육대회 개최(8월15일)
② 제62회 모국체전 선수단 파견(10월, 태권도 3명, 테니스 4명, 마라톤 1명, 임원 10명)
③ 26사단(사단장·장기호 소장)및 서울 중부경찰서와 자매결연

●계 획
① 제63회 모국 동계체전 하키선수단 파견(1월20일 선수및 임원 35명 참가)
② 정기총회(1월25일)
③ 제2회 8·15광복절기념 교민체육대회(8월)
④ 산하체육단체 적극 후원

끝

<신년단편>

합 화 (合火) ②

이 태 준

한놈이 좋아서 소리를지를뿐, 별다른 동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속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달식은 다시 태연하게 접근해 갔다. 불과 칠팔보의 거리를 두고야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 보이자, 불밭을 지키고 있던 청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달식은 여유를 줄 수 없었다. 「행동개시!」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양동이의 찬 얼음물이불밭과 지키고 있던 청년들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삽시간에 활활 타오르고있던 불밭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고, 물벼락을 맞은 청년들은 소리 한번 못지르고 홍수만난 쥐새끼들마냥 북북 기어서 도망을 쳤다.

한달식은 이미 다른 대원들이 어디론지 뿔뿔이 달아나 버린 줄도 모르고, 도우리의 불밭에서 지르는 환호소리를 들으며 아직도 불씨가 남아 연기를 내고 있는 불밭을 정신없이 차내고 있다가 뒤늦게야 혼자인 것을 알고 도우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으나 소식을 듣고 쫓아나온 광대골의 청년들에게 이미 발각된 후였다.

「야-, 한놈이 [illegible]. 도우리로 빠지는 길부터 막아라.」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소리를 지르며 몰려왔다. 발이 빠른 그였으나 도우리를 향해 계속 뛰다가는 영락없이 잡힐 것같았다. 다급해진 그는 할 수 없이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내는 둑길로 몸을 은폐하며 방향을 바꾸어 광대골로 향했다. 적진이기는 하지만 집들이 많이 들어앉은 동네안이 차라리 몸을 숨기기는 유리할 것같았기 때문이었다.

* *

거나하게 취해 허물이없는 노인들은 윷놀이와 함께 농담도 무르익어 갔다.

「금방 가봐야 할 사람이 돈은 그렇게 따서 무얼해?」

「죽어도 천당표 살 돈은 가지고 가야지, 자네같이 죄많은 사람이 돈도 없이 죽어봐, 지옥 천신도 못하고 작살이 나지.」

「내가 무슨 죄가있간듸?」

「어허, 보는 사람없다고 늙은 것이 뻔뻔스럽기는꼭 초 칠한 마루바닥 같구먼. 옆집 수절과부가 욕심나서 토담 뛰어넘다 남의 장독깬 죄는 죄가 아니며,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 뚝 떼고 화장실문열고 며느리 궁둥이 훔쳐본 죄는 죄가 아니간듸?」

「예끼순!」

들창코 최영감과 한약방 김영감이 윷놀이보다는 신소리로 수작을 벌이고 있을 때, 「아니! 이사람들은 윷을 입으로 노나? 자네들 기다리다가는 손에 곰팡이 피겠네. 얼른 판을 돌리고, 손을 넘겨야 잃은 사람도 복구를 할게 아닌가?」

입담좋은 전라도 김노인이 통명스럽게 쏘아부쳤다. 부처처럼 벽난로옆에 앉아 타들어가는 불빛만 바라보고 있던 한노인이 「거기술이 있으면 나도 한잔 주소?」하고 술을 청했다.

「거, 좋지! 괴로울 때는 술이 약이니께니, 여기 있네. 쭉 마시고 나면 기분이 바뀌리··.」

반갑다는 표정으로 한노인과 동향인 곽노인이 맥주병을 따서 건넸다.

「독한 술이 있으면 독한 것으로 주게나.」「양주로?」 한노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 사람 말술을 끊었다고 자랑이대단하더니 그동안 못마신 것을 보충이라도 하려나?」

반쯤 남아있는 위스키병을 받아든 한노인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에 들이붓고 있었다.

볼록한 목의 복숭아씨가 상하로 요동을 치고, 꿀꺽 꿀꺽 술 넘어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윷놀이 하던 노인들이 눈을 휘둥그랗게 뜨고 한노인을 쳐다 보고 있었다.

* *

「저놈이 우리동네로 들어서는 둑길을 따라 뛴다」

세명이 그의 뒤를 바싹 추격해 오고 있었다. 빌려입은 저고리의 옷고름이 풀어 헤쳐지고, 땀에감긴 치마가 찢어져 바로 미친 여자의 형상이었다.

동네로 들어선 그는 은신처를 찾을만한 경황이 없었다. 발길이 닿는대로 아무집에나 뛰어들었다. 외양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채의 부엌인듯 싶었다. 뒤쫓는 놈들의 뛰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동네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초조하고 다급해진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희끄무레한 방의 창문을 발견했다. 아마 머슴이나 초동의 방이려니 생각하고 무조건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 갔다. 사람인 듯한 물체가 자다가 오뚝이 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람 좀 살리시오, 나는 도우리 한달식이요.」

콱콱 막혀오는 숨결때문에 겨우 말을 이었다.

「에그머나··」

상대방은 너무 놀란 탓인지, 더이상 말은 못하고 이불로 몸을 가리며 방구석으로 피했다.

「미안하오. 나는 도우리 한달식이요. 불밭을 습격왔다 쫓기고 있는 중이요. 잠시 피해있다 갈테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숨을 할딱거리며 급한 사정이야기를 했으나 구석에서는턱이 덜덜 떨리는 소리만 들릴 뿐, 대꾸가 없었다. 그가 말을 끝내기가 바쁘게 뒤쫓던 자들이 마당으로들어서는 발자국소리가 쿵쿵 울렸다.

한달식은 목소리가 처녀인 것을 알고, 더 변명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다.

「분명히 이집으로 들어왔으니까 샅샅이 뒤져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는 소리가 집안에 요란했다. 「뉘냐?」 봉창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잠이깬 집주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도우리 놈이 우리 동네 불밭을 습격하고, 이집으로 숨어들었소.」

집을 뒤지고 있던 한 젊은이가 헐떡거리며 대답했다. 한달식은 조여오는 초조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어느 놈이 우리집에 숨어들었다고 야단이냐? 그만 찾아보았으면 어여들 물러가거라.」

봉창문 닫는 소리를 뒤이어 저희들끼리 투덜거리는 소리가 앞마당에서 들렸다.

「분명히 이집으로 들어왔는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마루밑도 찾아보았니?」

「부뚜막 아궁이 속까지 쑤셔봤다, 임마!」

「벌써 개구멍으로 새버렸는지도 모르지.」

「김새는데, 눈앞에 보고도 놓쳤으니··.」

「야! 이러고만 있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몇집 더 훑어보자.」

그들의 발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엉거주춤 서있던 한달식의 입에서안도의 숨소리가 절로 나왔다. 아직 불안한 상태였지만 더 있을 수가 없어서나오려고 한달식은 문고리를 잡았다.

「한달식, 총각이라면 나도 알만 허네유.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께 안전하게 조금만 더 있다 떠나세요.」

여느 정도 진정을 한 처녀가 어둠속에서도 달식의 거동을 알고 모기만한 소리로 만류를 했다. 크나큰 무례를 범한 달식이로서는 더없이 고맙고 반가운 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더이상 방에 머물기는 멋적었다.

「말씀은 더할 수 없이고맙소만 서로 거북 스러운 자리이니 부엌으로 나가기다리다 기회를 봐서 떠나겠소. 그럼 화합날 봅시다. 정말 고맙소. 잊지 않으리다.」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사위는 다시 고요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멍청히 서있는 한달식의 귀에는 방에서 이불 뒤채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 *

그일이 있은 후, 광대골과 도우리에는 누가 퍼뜨렸는지 한달식이 쫓기던날 처녀방에 숨어 들어 자고 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양쪽 부모는 조용히 합의를 보고 서둘러 혼인을 시켜 버렸는데, 당사자인 달식과 그 처녀는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는 터여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임자가 참 남편복은 있는 여자여. 내가 하필이면 그 상황중에 그래 그 집으로 뛰어들겠어?」

「어이고, 그런 소리 말아유. 당신이야말로 마누라복은 타고 났어요. 내가 만일에 소리를 질렀어봐유.」

「이런 젠장헐! 내가 맘에 있어서 이불을 뒤챈 이는 뉘고?」

살림을 난 후에도 그들이 이런 농담을 주고 받으며 오손도손 부부의 정을 붙여가고 있을 때, 숙명적인 난리가 그들은 물론 한반도를 휩쓸어 버렸다.

매달리고 엎혀가는 피난기차를 어린애들까지 하나씩 달고 타려고 했던 것은 벌써 생이별을 예고하는거나 다름이 없었다. 큰아들을 들쳐업고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기차에 매달려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있을 테니 뒤따라 와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한달식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겨우 두 발을 기차안에 넣고 있다 밀고 밀리는 수라장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난 부인과 둘째가 발을 동동 굴러도 그렇게 절망적인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 내일이면, 몇개월이면 되겠지하는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나고 한노인은 큰아들을 따라만리이국 캐나다까지 흘러와 오늘에 이르렀다.

* *

윷판은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돈을 잃은사람과 딴 사람이 가끔 실랑이를 벌일 뿐, 흥은 깨지고, 노인들은 더욱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가 늘어갔다.

병채 술을 마시고도 계속 침묵을 지키며 불만 바라보던 한노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벽난로에서 꺼져가는 장작개비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느닷없이 고함을 질렀다.

「야! 불싸움이 끝났으면 합화를 해야 할 게 아니야! 한 나라 한 백성 인데 삼팔선이 뭐라고 생가족을 갈라 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게야? 잊어볼려고 이나라까지 흘러왔지만 잊혀지기는 커녕 더 못견디겠단 말이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30년을 손꼽았으면 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응? 이제그만 합화를 하자구. 죽기전에 남과 북이 이렇게 합화를 하고, 생이별한 가족들을 얼싸안고 한바탕 놀아보잔 말이야!」

양손에 하나씩 쥐고 있던 장작개비를 한 곳으로 모으는 한노인의 손은 바르르 떨고, 벌겋게 달아올라 핏대가 선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노인의 행동에 심각해진 윷판의 노인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고 있었다.

(끝)

독자~만화

※만화가 정승규씨
●1975~77년 : 월간아동잡지<소년세계>편집장
●1975~77년 : 어린이만화와 삽화 발표.
●77년10월 : 캐나다 이민.
●현재 : 밍크전문가로 활약(록키모피 대표·Tel. 366-4497)

거 구 장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거구장

쇼 쇼 쇼

"거구장이 교민에게 드리는 구정 특별선물"

* 매력의 저음가수 **남일해**씨 토론토에 오다!!

일시 : 1월21, 22, 23, 24일(목, 금, 토, 일)오후9시~새벽2시까지
장소 : 거 구 장
주소 : 5 BETHRIDGE RD. (키프링×HWY 401 1블럭 북쪽)

전화 : 742-1618 이 한 영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새출발의 1982년

새해를 맞은 협회는 협회원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함께 새로운 각오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굳게 다짐한다.

밝아온 임술년의 서두부터 협회의 기능은 멈추지 않고 활동중이며, 특별히 1월 7일(木) 6시 인·언더·파·호텔(Inn on the Park : 1100 Eglinton Ave East)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44명의 이사와 집행부 임원, 회장단을 자문해줄 자문위원들의 합동 자리를 마련하여 상견식을 갖게 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수고할 이사장단의 선거와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위원장 선출을 하게되며, 선임된 이사들의 서약과위임장이 증여될 것이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해밀톤지역에 협회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그 지역의 대표들을 초청, 현황과 실정을 직접 듣고 참조키로 되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밀크와 아이스크림의 프로모션을 이룬 임원들은 제빵회사와의 교섭도 진행중이라고 알려졌다.

집행부 임원들의 조직도 거의 완료되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1982년은 활짝 열려져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계기를 준 것이므로, 협회의모든 회원들과 이사, 임원, 그리고 전교포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줌으로서목표를 달성하는 보람찬 출발을 이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자.

욕(York)아이스크림과의 재협약

지난 12월21일 협회회의실에서 욕(York)아이스크림회사 토론토지역 수퍼바이저 프랭크·패로우(Frank Farrow)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1982년도 재협약내용이 알려졌다. 그 내용은품질보장과 써비스, 주문방법, 시설물 제공의 경우, 그리고 리베이트에 대한 비율과 K.B.A.에 제공하게 되는 프로모션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었다. 회원들이 자세히 알게 되기를 원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한다.

차회장 귀하

한인실업인협회가 지난 2년동안 협조하여준 결과로 1982년도에도 최고의품질을 보장하는 욕아이스크림을 계속 공급해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본회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은 온타리오주 해리스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신선한 순수우유와 뻐터유를 공급받아 처리합니다.

본사의 생산과정은 철저한 주의력과 정확한 공정방식에 의한 품질의 조절, 완벽한 위생시설에 의한마이크로스틱 검사기를 거쳐 박테리아 세균테스트를 하는 정평있는 공정법을 통하여 완벽하게 생산됩니다.

또한 당일주문은 당일에 배달한다는 "패들 시스템" 수송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잘 훈련된 트럭운전사들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아이스크림 캐비넷을 제공합니다.

신품 8인치—연 $6,000이상
〃 6인치—연 $4,500 〃
중고품8인치—연 $5,000 〃
〃 6인치—연 $3,000 〃

리베이트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본사제공 시설물의 경우

연 $3,000∼$7,000=16%
〃 $4,500∼$7,000=17%
〃 $7,000∼$9,000=18%
〃 $9,000 이 상 =21%

자기소유 시설물의 경우

연 $2,000∼$3,000= 4 %
〃 $3,000∼$5,000=18%
〃 $5,000∼$8,000=21%
〃 $8,000 이 상 =23%

시설물의 수리와 주의사항

본사소유의 시설물(캐비넷)의 일체의 수리와 스타의 피해는 본사가 책임짐. 전기사고로 인한 제품의손해는 책임질 수 없으며, 스토어의 자기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모숀 프로그램에 대하여(Promotion Program)

1982년1월4일부터 2월26일까지 실협회원에 한하여 본사의 아이스크림 1리터당 $1.15에 제공하며 한번들(bundle)당 $4.60 에 공급할 것이며, 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에 계속 매달 한 품목씩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과 한인실업인협회와의 두터운 유대관계를 계속하여 성장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1차 정기이사회에 상정될 82년도 사업계획서

1. 기획조사실의 운영
(가) 회원의 여론 조사및 수집
(1)공청회, (2) 실협뉴스를 통한 회원투고, (3)지구장제도화에 의한 여론 수집
(나)체계적인 협회의 단기 및 장기적 사업의 추진
(다)협회집행부의 최대한 활동방안 연구
2. Complain상담실의 운영
(가)Complain접수및 처리대장 비치
(나)Complain의 유형파악 및 분류
(다)Complain처리상담실장의 채용(예산의 허용한계에서 Part time)
(라)집행부임원및 이사진의 주번제도(주번제도에의한 Complain 상담실의지원)
(마)Complain유형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모색
3. 공동구매활동을 위한 사업(체계적 협동조합의 설립 이전)
(가)연중 순차적인 Promotion에 의한 지원(최소한 월2개품목 이상. ※예. Icecream, Pota to Chip Pop, Bread, Milk)
(나)Promotion을 위한 선전포스터 제공
(다)밀크, 빵, 담배등 회원취급 주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윤 향상책 추구
(라)상점보험, 의료보험의 그룹화 연구
(마)상점재비용및 시설물 유지에 대한 비용절감을위한 연구 지정업소및 업자 선정
(바)자체브랜드, 청량음료 위탁생산(Own Brand, Pop)
4.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사업
(가)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및 회원협조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나)협동조합정관초안위원회 구성
(다)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라)협동조합의 연내설립 추진
5. 회원의 권익옹호및 교육사업
(가)고문변호사의 실질적인 활용
(나)회원상점의 보호책 강구(비회원상점과의 경쟁인 경우 적극적인 지원)
(다)공병유통 과정의 개선책 연구
(라)세미나 개최(코너스토어 운영및 경영에 관한 문제, Payroll, Tax deduction 도난방지, 강도방지등등)
6. 홍보및 친교활동을 위한 사업
(가)대내 사업—
(1) 실협뉴스의 활용증대 및 전문화(실협뉴스 편집실 운영)
(2)지역별 공청회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여론조사및 친교 도모(Supplier들에게 지원 요구)
(3)야유회, 혹은 골프대회
(4)협회창립 제9주년「실협의 밤」개최 예정
(5)회원명부및 회원증 발부
(나)대외 사업—
(1)한인 각단체와의 횡적인 유대 강화
(2)「상공인의 날」회원 모국 방문단 구성
(3)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경찰, 정박아, 불구자등)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그자는 한참 동안을 어쩔줄 몰라하더니 껌값을 카운터위에 놓고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가 나쁜사람이 아니었다면 왜 유모어섞인 말로 보여주며 이건 권총이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얘기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는지 난 지금도 의심스럽다. 아무튼 난 완전히 색안경 강도 공포증에 걸려 계속 그러다간 심장마비라도 걸려 쓰러질것만 같았다. 그외엔 다른건 전혀 신경을 쓰지않아도됐고, 장사도 잘되는 편이었다.

5) 그사이에 한몫낀「도」씨, 그러던 어느날 12월 정초가 되었다. 크리스마스를일주일 앞둔날 상점문을 예전과같이 11시에 닫고 집에돌아와 약새벽1시경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약3시가 되었을까? 둘째딸애가 열이나며 보채기 시작했다. 냉장고에 있는 쥬스를 주기위해 밑에 부엌으로 내려오니 부엌찬장문 하며, 바로곁에 있는 리빙룸 책상설합등이 모두 열려있었고,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잠자고있는 아빠를 불렀다. 허둥지둥 내려온 우리온 식구는 예상치 않았던 도둑씨의 방문에 너무 기가막혔다. 책상설합속에 잠겨놓은 그날 하루 매상을 사그리 실례해 갔고 그것도 모자라 설합문마다 부수고 부엌찬장을 다뒤지고 난리를 쳤다. 즉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범인이 사용했던 휘어진 칼과 Can Opener를 증거로 가지고 갔다. 얼마후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식탁위에놓아둔 나의 열쇠 전부가 없었다. 틀림없이 그도둑이 가져갔을 거라는 예감으로 경찰에게 이얘기를 했고, 경찰은 다른 경찰과 무전으로 우리상점에 특별순회할것을 부탁해 주었다. 좀 의심이 가기는 하면서도설마 그키로 상점에는 나타나지 않겠지··. 께름직한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아침 9시 상점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이건 진짜 믿겨지지 않는 귀신이 곡할일을 저질러 놓았다. 그 도둑은 얌전히비상벨을 끄고 상점에 들어와선 냉장고안을 샅샅이 뒤졌고 캐쉬레지스터 안에 놓았던 동전전부를 말끔히 가져갔다. 우리와 강도, 도둑과는 무슨 조상때부터 맺어논 인연이 있는가보다 아무튼 또 경찰을 불렀다 어제밤부터 일어난 일을 상세히 보고해주었다. 얘기를 듣고난「도둑특별단속반」에 속한다는 형사 하나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 했다. 누가 어떻게 그리 집안사정을 훤히 알고 집을 털어간후 그키로 또 상점을 도둑질해 갈수 있겠느냐라는 수긍이 가는 얘기였다.「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았소?」난 당한 입장에서 경찰에게 보고하는것 뿐이니 믿어도 좋고 믿지않아도 좋소」너무 신경질이나 단정히 정리해논 선반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내던지고픈 심정이었다. 별일이 아니라고 단정했는지 그뒤론 연락이 없었다. 얼마후 친분이 있는 분으로부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틀림없는 아는사람의 짓이라는게 모든 주위사람들의 애기였지만 도둑맞고 빰 맞을지 몰라 함구무언 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1주일후 그러니까 12월 24일 저녁 6시경, 우린 둘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점에서 손님과 한참 바쁜시간에 집에서 전화가 왔다. 도둑이또 다녀갔단다. 내용인즉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밖에 잠시 나갔다온사이 온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있었고, 지난번에 재미를 톡톡히 본 똑같은 도씨였는지 이번엔 위층 침실 샅샅이 뒤져 온집안을 싸구려시장판처럼 해놓고 가 신뒤란다. 이럴수가, 정말 이럴수가·· 벌려진입이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다. 한번을 당하고 난후의 지혜(?)로 현금은 일체 집에보관치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돈이 없었지만, 몇년간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은전(동전들)이 든 큰 항아리를 통체 들고가 버렸다.

〈계 속〉

한국관

연무 중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초대장

본회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모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국동계체전에 참전하는 아이스하키 중등부 선수와 임원의 결단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월16일(토) 오후5시정각
장소 : 한인회관

주최 : 재캐나다 체육회 아이스하키 협회

DOMINION SMALLWARES

~~ CASH & CARRY에 한함 ~~

Dec.21 - Jan. 9 '82

		(spec)
Neilson Reg. bar	36x40¢	9.59
Cadbury Reg. bar	36x40	9.69
Rowntree Reg. bar	36x40	9.5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Breath savers	12x30	2.55
Pot of gold box choco.	450g	3.85
Allmondillos box choco.	400g	3.85
Black Magic box choco.	1/2 pd.	2.15
Turtles box choco.	400g	4.19
Toffifay box choco.	391g	4.29
Lee's snow ball	36x25	6.00
Neilson chunks	120x15	10.65
Moirs bag candy	24x25	3.09
Double bubble soft gum Strawberry	20x30	3.4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TOR.(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종업원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W.
☎ : 977—2164(Mr.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김)

도너스샵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9 : 00AM.(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도너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매매및 양도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버라이에티 스토아 매매(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 : 1+5년 아스킹 : $4,100
☎ : 221—2084(Mr.LEE)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BRACE BRIDGE ONTARIO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베이뷰 & 핀치하우스 4베드룸+훼밀리룸 지하실, FIRE PLACE, 2개 가라지. 아스킹 : $189950
☎ : 221—9338(7시PM이후 연락바람)

듀폰 수퍼마켓 매매 아스킹 : $5000+인벤토리
☎ : 53 70892
(앨리나 SAM에게 연락요)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78년형 VAN(G.M.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KI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통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태 권 도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집·방세·하숙

사무실 렌트합니다.
681 A BLOOR ST.W.
☎ : 585—8801

독신자 원함 $170(MONTHLY)
P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권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킴스 미용실 (코리아 하우스 뒤)
☎ : B) 532—7094. R) 248—243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집. 가게.공장) 김부원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풍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벤 토 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TOR.ONT. M6E 2G9
☎ : (B)789—7351 , 789—7352
대표 이인용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o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o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W. ☎ : 967—7121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최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구 혼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한 방 원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W. Suit 206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기 타

번역 통역 : CHARLES YU(유좌석) :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 월요일
M4A 2R1 ☎ : 759—9505(5시이후)만합니다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1981년이여 안녕

◇81년이 저문다。年末 하루를남긴 세모의 거리를 메운 人波가 세월처럼 흘러가고있다。 81년에 행복했던사람,불행했던 사람,한해를 잊고싶은 사람…그어느누구에게도 가는해는 쓸쓸함을,밝아오는 새해는 희망을 품게한다。多事多難했던 81년이여, 안녕! 【明洞入口서 崔東完기자찍음】

年初 부분적政界改編 예상

일부 群小政黨 統合움직임

創黨2년계기 黨勢재정비

各黨 市道지부·事故지구당收拾도

職能조직을 活性化 (民正)
政策·批判정당도약 (民韓)
組織강화 特委구성 (국민)

새해1월중순께부터 創黨 2년을 맞는 주요정당과 群小정당들은 재각기 새로운 體制정비를 시도하는 한편 議政同友會를 구성하고있는 일부 群小정당은 統合움직임을 보이는등 부분적인 政界改編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民正 民韓 국민등 주요정당들은 創黨한돌을 계기로 黨勢확장을 적극추진하는 한편 아직 구성되지 않은 市道支部와 事故지구당도 아울러 결성,改編할 방침으로 있다.

體制를 定着시키기위해 일부 黨職의 개편설이 나돌고있으며 黨憲上 각기구의 기능도 아울러 점검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제2의 創黨」을 위해 黨勢現況파악과 아울러 有力人士의 入黨작업을 추진하는 동시 지구당조직도 재정비하고 새해 정책활동의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특히 各界人士迎入방침에 따라 대상자명단을 작성, 入黨교섭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黨고문, 자문위원, 중앙위원, 국민운동支部長등의 개편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으며 내년부터 職能조직을 活性化하는 한편 黨內에 기독교 天主教 佛教등 종교별로 신도단체를 조직하여 종교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계획이다.

民正黨은 또한 黨員교육의 확대와함께 黨員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했다.

李相宰사무차장은 『3·25총선에서 民正黨이 壓勝을거둔것은 民正黨에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기때문이었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않기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있는 사람들로 일할 체제를 갖추기위해 현재 조직정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은 지난3·25총선이후 각市道지부와 지구당의기간조직요원을 40대이하로 교체, 舊共和黨조직의 80%를 도려냄으로써 系線조직의활성화를 기한데이어 내년에는 40대이상의 有力인사들을 중앙위원으로 迎入, 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할예정이다.

또 유권자의 50%가 여성임을감안,전국 6만5천명의 활동장중 40%를 여성으로 교체하며 특히 아파트지역의 활동장은 전원여성으로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民正黨은 創黨1주년을 계기로 民正黨의붐을 조성하기위해 여러가지기념행사를 준비하고있는데 2월에는 국내 저명학자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統一문제심포지엄을,3월에는 「正義로운복지사회구현심포지엄」을각각개최한다.

【民韓黨】 건전한 「批判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동시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次期정권담당 세력으로서의 기본터전을 마련키 위해 적극적인 「정책정당」으로서의 도약을 시도할계획이다.

辛相佑사무총장은 30일『民韓黨은 창당한돌을앞두고 지난한해를 「自省의한해」로, 그리고새해를 「跳躍의한해」로 삼고 「批判정당으로서의 기능회복과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위한 노력이 집중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직을 재정비 풀稼動시킨다는 기본방침아래 사실상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10개 市道支部를 結成하고 전국6개 事故지구당과 不實지구당의 재정비를 위한 組織정비 特委를 연초에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辛총장은 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정권담당세력으로서 實體化될수있는 정당으로 성숙키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함께 국민들과 호흡을 함께 나누기위한 지구당의 활성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金銘圭훈련원장도 『적극적인 당원교육을 통해 黨의 下部조직을 강화, 黨의 정신적인 결속을 시도하고 한편 地方자치제의실시에대비한人力확보를할계획』이라고말했다.

【국민당】 새해를 조직강화의 해로 설정한 국민당은 30일 하오 당무회의를 갖고 黨조직강화 特委를 구성했다.

국민당은 ▲黨 조직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수립▲次期總選에 당선될수있는 유능한 지구당조직책 확보▲精銳당원 훈련문제 중점연구등을 위해 당무회의 산하에 이特委를 설치, 내년1월부터 지역구를 순방하며 조직점검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特委는 현재 14개未創黨지구당의 조직책을 선발하는한편 8개사고지구당의 위원장代行인물의 선정작업도 겸하며 1단계 지방조직정비작업이 끝나면 2단계로 黨勢확장및훈련방안을연구하게된다.

青瓦臺비서실장 更迭

金瓊元씨 유엔大使、李相周씨 江原大총장에

後任 1월任命、駐佛大使엔 尹錫憲씨內定

정부는30일 金瓊元 대통령비서실장을 駐유엔대사로,李相周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江原대학교 총장으로 각각 임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錫憲 駐유엔대사는 駐프랑스대사로, 閔丙岐駐프랑스대사는 본부대사로 각각 내정됐다.

李신임江原大총장의 발령은 1월11일자로 결정됐으나 金대사는1월중 대통령비서실장 後任이 결정될때까지 계속現職에 근무하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수석비서관도 후임이결정될때까지 현직에 근무하게 된다.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24일 許和平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을 政務제1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데이어 이번에 비서실장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更迭, 청와대비서실 참모진중 4명의 자리가 바뀌게됐다.

辭表를 낸 李敏載江原大총장은 의원면직되는것으로 알려졌다.

◇金瓊元대사略歷=▲平南鎭南浦출신·45세▲서울大法大중퇴▲美윌리엄스大,하버드大學院卒(政治學박사)▲캐나다요크大副교수▲美뉴욕大副교수▲高大교수▲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별보좌관▲대통령비서실장

◇尹錫憲대사=▲京畿龍仁출신·59세▲서울大文理大卒▲駐카이로총영사▲외교연구원장▲駐필리핀대사▲외무차관▲駐프랑스대사▲駐유엔대표부대사

◇李相周총장=▲慶北月城출신·44세▲서울大師範大卒▲美피츠버그교육대학원卒(교육학박사)▲공군사관학교교관(空軍中尉)▲서울大師範大조교수·부교수▲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비서관

◇金瓊元대사

◇尹錫憲대사

◇李相周총장

蘇여객機 美就航금지

레이건、波사태관련 7개項 경제制裁

【워싱턴·로스앤젤레스29日 UPI聯合=本社特約】 레이건美대통령은 29일 소련이 폴란드계엄선포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고도기술의 수출중단을 포함한 7개항 對蘇경제制裁조치를 명령했다.

▲소련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美취항전면중지

▲소련구매위원회 폐쇄

▲전자장비·컴퓨터및 기타 고도기술자료의 對蘇수출 신청을 위한 면장의 발급 혹은 갱신중단

▲새로운 장기곡물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중단. 이 회담개막일자는 발표된바없으나 美行政府관리들은 새해 2월중순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준비를 해왔다.

▲새로운 美蘇海洋협정에 관한 협상중단. 현재의 海洋협정이 오는31일 만료되면 모든 蘇聯선박에 대한 새로운 항만출입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석유와 가스장비품목의 對蘇수출면장의 발급중단▲에너지 과학및 기술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가까운 장래에 경신될예정인 美蘇교류협정의 경신중단.

레이건 대통령은 이같은 7개항 경제조치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히고 만일 필요하다면 또다른 경제및 정치적 제재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社會漫評

社告

새해 새連載小說

그해겨울은 따뜻했네

話題의 女流作家가 던질 新鮮한 충격

朴婉緖 作 / 金光培 畫

한국일보社는 우리文壇에서 小說의 眞髓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여류작가 朴婉緖씨(50)의 새 연재소설 「그해겨울은 따뜻했네」를 壬戌年 새해에 독자 여러분들 앞에 펼쳐드립니다.

朴婉緖씨는 그 누구의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단단한 재미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강한 問題意識을 나란히 품고있는 일련의 소설들을 써내고 있어 가장 매력넘치는 작가로,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로 식을줄 모르는 화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는 40세에 장편소설 「裸木」으로 文壇에 첫발을 디뎠으나 그후 10여년간 놀랄만한 에너지의 붐을 당겨 많은 소설을 쓰면서, 매 소설마다 모두 어김없이 베스트 셀러로 만들어 내곤 했읍니다.

특히 그가 이번에 쓰게될 「그해겨울은 따뜻했네」는 지금까지 썼던 소설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기한 재미로 독자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을 일으킬 것입니다.

1월5일부터

이 소설은 6·25동란중 서로를 잃어버려야 했던 두姉妹가 30代 여성이 되기까지 각각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성장하며 빚는 갖가지 다채로운 人情的·愛情的인 사건을 교차시키며 對比하는 이색 수법으로 전개됩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여러분의 눈길을 이끌고 놓지 않을것이며 그 스토리의 갈피마다 우리들 사이에서 스러져가는 사랑의 기쁨을 다시 진하게 일깨워줄 것입니다.

오는1월5일자부터 연재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삽화는 섬세하고 정확한 筆致로 특히 여성의 심리묘사에 탁월한 솜씨를 가진 金光培화백이 맡아 수고하게 됩니다.

한국일보社

地平線

辛酉年이 저문다。81년은 인류가 지금껏 겪지못한 大變動의 물결에 휘말리기시작한 한해였다。폴란드의 비극、미테랑쇼크、레이거노믹스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SALT협상의 교착으로 核戰爭時計는 미드나이트까지 숨막힌 「4分前」을 여전히 가리키고있다。국제정치적인 긴장못지않게 社會的으로는 미국의 앨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지적한 쇼크가 다가온해이기도 했다。대니얼·벨은 脫工業化社會현상이라고 말했지만 놀라운 유전자공학시대에 접어들면서 ABCDEF산업의 발전으로 인류생활의 질적인변화에 부딪친 한해였다고 할수있다。

▼「未來의 충격」을 쓴 토플러는 농업기술의 발견에서 1만년이 흐른시대를 「제1의 물결」、산업혁명후의 기술혁신시대인 약3백년을 「제2의물결」、지금은 고도로발달한 과학기술시대인 「제3의 물결」시대라고 구분했다。가족제도의 붕괴、가치관의 분열、윤상군사전등이 「제3의 물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류는 새로운 정신체계를 구축하면서 21世紀의 民主主義로 불릴 멋진 未來사회에 도달할수있다고 토플러는 말한다。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바람이 불고 행정기구 간소화、군살빼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토플러가 말하는 未來와 어느 점에서 같은 방향인지 모른다。

▼새로운 포스트 산업사회는 ABCDEF 산업으로 대표된다。철강이나 造船으로 대신 超尖端 기술산업이 빛을 본다는 것이다。A는 오피스·오토메이션이나 로보트가 대표적인 오토메이션산업을 뜻한다。B는 유전자공학과 制癌의학인 바이오케미컬산업、C는 컴퓨터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체인 데이터통신및 레이저통신등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산업、D는 Do it yourself시대의 스포츠나 레저에 관련된 DIY 산업、E는 太陽熱、메탄 가스이용같은 새 에너지산업、F는 새 分子化合物開發을 목표로한 파인 케미컬산업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아직 중화학공업시대의 문턱에있어 강철·조선업의 비중이 더커지고있지만 유전자공학、새에너지산업、데이터통신등 ABCDEF산업에의 지름길도 찾아야 할계제이다。로보트가 우리산업계에 들어오기시작했고 온라인등 컴퓨터이용이 보편화하고있다。

▼우리국민의 1인당소득이 1천6백36달러에 이르렀다。파리의 유행이 그 다음날로 오고 미국의 기침이 그날로 퍼지는 사회에 살고있다。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나 ABCDEF산업이 우리생활가까이 와 있는것이다。우리나름의 새로운 가치체계、우리실정에 맞는 생활양식이 하루빨리 자리잡아야할 시대에 서있다。저무는 한해를 보내면서 壬戌年의 새설계도를 이모 저모로 다듬어야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베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폴란드 副首相 西獨방문

戒嚴下의 국내狀況 설명

美의 制裁조치에 對應

겐셔外相、改革조속履行 촉구할듯

【본29日UPI·路透=聯合】미에치스와프·라코프스키 폴란드부수상은 계엄선포이후 최초의 對西方공식사절로 30일 본을 방문、한스·디트리히·겐셔외상을 비롯한 서독고위관리들과 회담을 갖는다고 西獨외무성이 29일 발표했다。

서독외무성은 이날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이 라코프스키부수상을 서독에 파견、폴란드의 현상황을 설명할 것이며 겐셔외상과 30일 회담한다고 밝혔다。

부수상을 겸하고있는 겐셔외상은 현재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헬무트·슈미트수상을 대리하고있다。

西獨정부소식통들은 겐셔외상이 라코프스키부수상과의 회담에서 폴란드의 계엄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한 정치적대화와 경제개혁을 단시일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할것이라고 전했다。

◇29일 폴란드사태협의를위한 긴급비공개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갖고있는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西方사회주의세력지도자들。왼쪽세번째가이번회의를 주재한 네덜란드노동당의 유프·덴·율당수이다。【파리29日路透=聯合】

폴란드戒嚴令 강력비난

社會主義인터내셔널 指導者들

【파리29日AP=聯合】사회주의인터내셔널소속의 西方사회당 지도자들은 29일 파리에서 긴급비공개회의를 갖고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와 잔악한 人權탄압행위를 비난하는 강경한 어조의 공동성명을채택했다。

프랑스집권 사회당의 요구로 열린 이날의 회의에는 英國·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등 유럽국가의 15개 사회당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의장인 빌리·브란트前西獨수상은 불참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부의장인 유프·덴·율 네덜란드부수상에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폴란드당국에 지난13일 계엄령선포이래 구금된모든 폴란드人들을 석방하도록 촉구하면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소속 사회당세력들에 대해서는 對폴란드경제·재정지원을 사태발전과병행하여 검토하되 식량및 의약품공급은 계속할것을 호소했다。

"中共、對美관계冷却"

美관리 제3세계 立場강화 노려

【워싱턴·北京29日AP·UPI=聯合】중공은 第3世界국가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對美적극우호자세를 냉각시키고 있다고 미국관리들이 말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관리들은 中共의 이같은 장기정책으로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문제때문에 이미 暗雲이 덮여 있는 美·中共관계가 새롭게 결정적인 차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중공은 29일 레이건 미행정부가 對臺灣무기판매법안을 의회에 통고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해명하도록 미국정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소련과의 국경회담개를 위한 준비를 촉구함으로써 중공의 對外정책의 중대변환을 시사했다。

中共은 지난수년간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해왔으나 큰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중공정부는 이같은 對제3세계운동이 美·中共우호관계로 장애를 받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고 美관리들이 말했다。

과테말라 政治暴力

聖誕節後 92명死亡

【과테말라시티29日路透=聯合】과테말라는 성탄절후에 재개된 좌·우익간의 정치폭력사태로 92명이 사망하고 2백86명이 부상했다고 과테말라 경찰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92명의 사망자중에는 보안장교 1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首都과테말라시티동쪽 치키물라시의 경찰서폭파사건으로 1명의 민간인이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밝혔을뿐 다른 폭력사태들에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메아리

세모의 幸福度

옛날은사람들이 불가항력인 존재로 두려워했던것이 네가지가 있었다。지진、벼락、불、아버지의 순이다。최근엔 지진、불、교통사고、공해로 바뀌었다지만…。

우리 조상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것은 일본인처럼 사실적이기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무속신앙의 특징은 불행을 몰고 오는 귀신을 쫓고 福을 불러들이는 祈福에 있다。지금은 날로 쇠잔해 가는 送舊迎新의 풍경 가운데 행복을 파는 福조리를 빼놓을수 없다。

행복이란 따지고 보면 아주 주관적인 말이다。富貴多男이란 전래의 행복관도 시류에 따라 크게 변했다。

오늘 하루를 넘긴 이 세모에 억세게 재수좋은 복받은 사람이 나왔다。주택복권으로 횡재를 한 것이다。복권이란 행운과 꿈을 파는 장사다。당첨자는 뜻밖의 행운을 안고 수익금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갖기의 꿈을 키워준다。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권은 어느나라에서고 인기다。축구열이 대단한 브라질에선 축구경기 예상추첨으로 일확천금을 한 사람도 있다。미국의 복권상술은 더욱 세련감을 느끼게한다。연금방식 복권을 팔아 당첨자에게 매주 1천달러씩 준다며 구미를 돋운다。

갬블을 즐기는 호주는 주정부에서 각종복권을 발행한다。1931년 한 주정부에서 처음 복권을 팔았는데 이것은 공설병원을 짓기위해서였다。10여년에 걸쳐 세운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도 복권으로 지은 호주의 자랑거리。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복권은 흔히 그 용도보다 당첨의 행운이 더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다。그러나 당첨이 곧 행복과 직결될수는 없을것 같다。

미국의 심리학자코츠교수는 「행복에 관하여」라는 저서에서 복권당첨이 오히려 불만을 늘게 한다고 지적했다。당첨의 행복은 그 순간뿐 작은 기쁨에 무감각해지고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행복도를 조사한 심리학자 가츠도 비슷한 주장을 편다。남에게 도움을 준 사회사업가보다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數値」가 높다고 분석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에 있다。이해가 지나면 새해。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나눌때 그 福은 각자 마음에 있음을 새겨 두자。

西方과 손발못맞춘 레이건의 외로운 背水陣

波사태따른 對蘇 제재措置의 背景과 性格

国際焦点

【워싱턴30日=曺洋煥특파원】레이건미 대통령의 소련에대한 일련의 경제제재조치는곡물금수、전면무역중지、유럽전역핵군축회의중단등 강력한 대책을 보류해 두고있어 아직은 상징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레이건이 對蘇강경외교의 고삐를지점 휘어잡고 나온것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레이건은 지난 11개월동안 예산안통과、감세정책등 국내경제문제에 골몰해 왔으나 이번 폴란드사태를 고비로 헤이그국무、와인버거국방、미스 대통령고문에 맡겨오다시피했던 외교의 고삐를 직접 잡게되었다고 한다。

레이건이 직접 외교를 관장한다는것은 강경한 미국의 자세를 반영한 신호라고 보수주의적 원론가들은 풀이한다。

西獨과 큰見解差…공동보조 期待못해

곡물禁輸·軍縮회담 中斷등 強硬보류

지난23일 폴란드에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레이건의연설에도 헤이그는 소련을 직접 위협하는 말에는 신중을기할 것을 권고한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레이건은 폴란드에 탄압이 계속되면 美蘇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주는 구체적인 정치·경제적조치를 취할 도리밖에 없다고 소련을 옥박질렀다。

레이건은 브레즈네프에 보낸 서신회답이 올때까지 對蘇제재를 유보할것을 건의한 헤이그의 뜻만은받아들였다。레이건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브레즈네프회답에는 오히려 미국이 폴란드사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비난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그의 연설내용대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29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레이건은 對蘇제재조치를 취함에있어 서방우방들과 협의할 충분한 여유도 없이 거의 일방적인 응징책을 택했다。

이것은 대소응징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우방들과의 공동보조를 강조한 헤이그의 주장과는 다른 레이건의 전략이다。

레이건은 대소정책으로 서독과 틈이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동보조를 기다리면 시기를 잃게되며 행동없이 수수방관할수밖에 없게된다고 분석한 것같다。

레이건은 점차 고개를 들고있는 유럽의 대소응징에대한 일반여론을 중시하면서 그가 취한 일방적 제재가 나토우방들을 이끄는 자극제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소련에 강경책으로 점차 확대해 갈 신호를 소련뿐아니라 서방우방국에게도 보낸 레이건의 조치는 배수진을 친것이라고 할수있다。

레이건의 배수진은 오는1월5일 워싱턴에서 열릴 슈미트서독수상과의 회담에서 얼마만큼 美·西獨간의 이견의 폭을 좁히며 또 1월중순께 열릴 나토외상회의에서의 영국및 프랑스의 미국입장지지에서독이어떻게반응하느냐에크게좌우된다고볼수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 美·中共관계는 군사협력관계로 접어들었다。마찬가지로 대만무기판매 문제로 냉담해진 오늘의 美·中共관계도 미소관계가 급박해짐에따라 미국이82년초대만문제를물밑으로가라앉힘으로써 다시조정할것으로전망된다。

波、勞組 대대적 肅清

全國걸쳐 勞組員·동조자 수백만

【파리29日AP=聯合】폴란드계엄당국은 현재 활동이정지된 자유노조의 조합원및 동조자 수백만명에 대해 전국규모의 대대적 숙청작업을 개시했다고 바르샤바에서 29일 파리에 입수된 보고들이 전했다。

바르샤바의 믿을만한 소식통들에서 나온 이 보고들은 폴란드계엄당국이 이같은 숙청작업에 대한 지시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으며 라디오·TV및 관영 신문들의보도로 미루어볼때 계엄당국은 자유노조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복이란 인상을 씻어주기를 계속 반대해왔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자유노조를 대상으로한 모종의「청산작업」이 분명히 개시됐다고 전했다。

對軍部협상 同意

바웬사、斷食투쟁 中斷후

【빈29日AP=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단식농성을 중단、군사정부와의 협상에 동의했다고 29일 폴란드로부터 서방에 입수된보도들이 말했다。

바르샤바發보도에 의하면 바웬사의 가족들은 바웬사가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이틀후인 지난 25일 정부측과의 회담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18~45세 男子

波、노동義務化

【모스크바29日AFP=聯合】폴란드정부는 29일 계엄기간중 18~45세 남성들의 노동을 의무화하는 포고령을 송인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폴란드 관영 PAP통신을 인용한 타스통신은 이 포고령이 소득원이 정당치못한사람들을 노동에 동원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또 폴란드TV방송이『폴란드전국의정상회복』을발표했다고덧붙였다。

加망명波船員 보충

空輸된후에 또亡命

【몬트리올30日UPI=聯合】캐나다에 망명한 폴란드선원들의 임무를 대신하기위해 밴쿠버에 공수된 64명의 폴란드 선원중 4명이 29일 도착즉시 캐나다에 망명을 요청했으며 20명이 서방에 잔류할계획을 세우고 있다。

3개頭腦집단 構成

波共黨 정치設計

【런던29日路透=聯合】폴란드당국은 계엄령선포후 폴란드의 정치적 장래를 설계하는 작업을 돕도록하기 위해 3개의『두뇌집단』을 구성했다고 바르샤바로부터의 보도들이 29일 전했다。

바르샤바의 西方기자들로부터 나온 검열되지않은 보도들은 정통한 소식통들을인용、이 3개의 두뇌집단중적어도 1개가 한 진보적 공산주의자가 책임자로 있다고밝혔다。

◇81년의 乘用車　52명으로 구성된 국제자동차전문기자단에 의해 「올해의 승용차」로 선정된 「르노9」의 모습。이소형승용차는 내년에 美國서 생산되어 유럽 각지에 판매될 예정이다。【파리28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하루를 20時間으로

★印將校새미터月曆창안

1백초를 1분、1백분을 1시간、20시간을하루、그리고 7백30일을1년으로계산하는 새로운 미터법월력이 印度공군대위에의해제안됐다。

브리즈·부산·비즈란는 이 조종사는 최근출간한『종합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종래의 그레고리월력과는 달리 하루를20시간으로하고 분·초를 미터법에따라 책정한 새로운 달력을제안했는데 이는 계산을 손쉽게하고 컴퓨터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라고설명。

이미터법월력은 또 1개월이나 1주일에 해당하는기간은없지만 10일을 1『데카메인』(旬)로 계산、73데카데이를 1년으로 잡고있다。【뉴델리=AP】

샘플通關 불편

海外바이어불평

【서울=聯合】우리나라를 찾는 해외바이어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점은 샘플통관의 불편함과 세관절차가 복잡한것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수출품구매업자협회가 4백18개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바이어들가운데 32%가 샘플통관이 불편하다고 지적했으며 23%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한 점을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81년을 장식한 世界의 女傑 밝고 어두운 그림자들

◇장바구니를 들고 외출하는 다니엘·미테랑

◇에노모또·미에꼬

지난해의 역사를 나눠맡아 기록해온 여성들。그중에는 화려한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사람도 있고 뉴스의 뒷전에서 그냥 지나쳐 버린 인물도 있다。

81년을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성은 단연 다이애너·스펜서 英國황태자비(19)다。무려 2백만달러나 소요된 호화찬란한 영국황태자의 결혼식을통해 大英帝國은 권위와 위엄을 되살리고 악화일로의 北아일랜드사태와 침체하는 경제활동으로 심각한 지경에있는「우울증」을 다소 달래보려했다。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불황탈출의 妙手를찾지못한 대처수상의 보수당정부는 역시 차기女宰相을 꿈꾸는 셜리·윌리엄즈여사(51)의 만만찮은 도전을 받게됐다。윌리엄즈여사는「강철의부인」대처가 진정을 호소하러 갈만큼 심각했던 인종폭동의 본고장 리버풀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원에 진출했다。셜리의 승리는 곧 창당8개월의 社民黨이 영국 정치의 균형자役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것이다。

따라서 차기 수상자리를놓고 대처―셜리 두 여걸이 대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도버해협건너 프랑스에 사회당정권이 출범하자 엘리제궁에는 행동파 퍼스트 레이디가 들어앉았다。

레지스탕스동지였던 미테랑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다니엘여사가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서 宮을 나서는 모습은 처음부터 세계에「달라질 프랑스」의 모습을 예견케 했다。간간이 사회당사에 나가 일하는 다니엘여사는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지지를 프랑스외교정책으로 궁혀놓은 장본인이다。

2백만달러 豪華결혼식…萬人의 부러움사　英 皇太子妃

日誌회견 스캔들로 男便보좌관을 궁지에　美 낸시女史

장바구니든 퍼스트·레이디로 새로운 印像　佛미테랑夫人

自身의죽음 豫言한 점장이投獄 옹졸보여　印 간디首相

한편 레이거노믹스하는 경제회복의 처방이 별로 신통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백악관여주인 낸시여사(58)에 구설수가 잇달았다。인질사태다 경기침체다하는 달갑잖은 카터의 유산을 떠맡은 레이건행정부로서는 시각적으로 국민의 사기진작을 함섬으로 백악관을 화려하게꾸미는것까지는 의미가있었을 지 모른다。하지만 백악관치장에 70만달러나 들이고 중국산도자기구입에 20만달러 옷한벌에 5천달러(3백50만원)나 쓴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낸시여사는 여론의 화살을온몸에 받았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취임바로 다음날 낸시가 일본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가 뜻하지않은 말썽을 빚어 옐런特派를 물러나게했다。

그옐런의 후임으로 미국의 보수파여성 진·커크패트릭유엔대사가 거론되기도하여 결국「재판게이트」사건은여자들이 만든 노름판에 유일한남성 옐런이 중간에 끼여 화를 당한꼴이 됐다。

그런가운데 샌드라·데이·오코너여사가 미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셜리·윌리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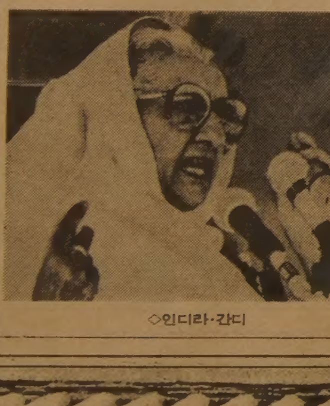
현대중국의 건설과함께 파란많은 인생을 孫文의 미망인 宋慶齡은 죽어서도 또한차례 國共투쟁의 소도구가되어야했다。

중공당국은 90세인 宋의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친동생이자 대만의 故蔣介石총통의 미망인인 宋美齡을 초청하는등 대만에대한 유화적공세를 맹렬히 전개했다。

맹렬여성으로는 일본의 에노모또·미에꼬(榎本三惠子·33)를 꼽을만하다。다나까前日本수상 비서 에노모또의 아내였던 미에꼬는 록히드사건의 재판에서 다나까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다나까는 물론 전남편 에노모또를 갑옥쪽으로 바짝 밀어붙였다。미에꼬여인이 전남편에게 불리한증언을 하게된동기는 이혼을당한처지에서 가슴에맺힌 원한때문이라니 여성恨의 서릿발같음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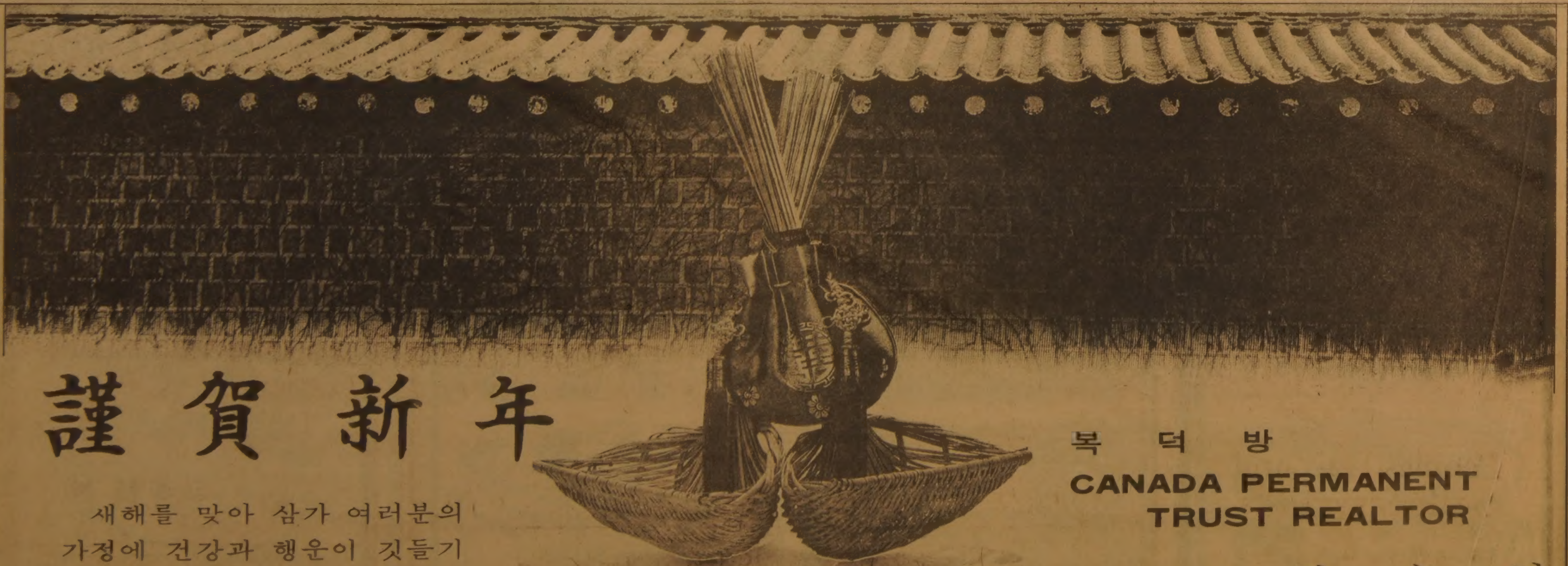
「義賊」이라는 소문으로이색적인 화제를던진 여성으로 훌란·데비가있다。인도북부지역을 무대로 산적활동을벌이고있는 미모의 여산적두목 훌란·데비(24)는 인도의뿌리깊은 계급제도에대한 불만을 가지고 상류층을 습격 천민들을 돕는 의적으로 통하고있다。

연말아 다가오면서 인디라·간디인도수상(63)은 한가지 해프닝을 연출했다。올해안에 자기가 죽을것이라고 예언을한 점장이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점패가 맞을는지는 오늘밤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당대의 여걸답지않은 짓이라는 비난도 없지않았다。



◇인디라·간디

방글라데시의 國父 무지부르·라만의 딸하시나여사(34)는지난5월 방글라데시의제일야당 아와미연맹의 당수로 추대되어 귀국、끈기있게 집권의 기회를 노리고있다。【朴永喆기자】



謹賀新年

새해를 맞아 삼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
를 기원합니다.

복 덕 방
CANADA PERMANENT
TRUST REALTOR

481－3443 황 순 일

81년에 발표된「女子의 마음」모두 99편

알뜰한 삶 따스한 情感 가득

「女子의 마음」은 여성이 일상생활가운데 만나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한 묶음 작은 꽃 다발처럼 엮어가는 독자들이 만드는 여성페이지다。

지난1년간 발표된「女子의 마음」은 모두 99편, 평균3일~4일에 1편이 발표된것으로 계산된다。이 99편의「女子의 마음」에는 여성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조각 한 조각씩 펼쳐져 우리 사회의 人情과 世態의 면모를 엿보이고 있다。

지난1년간「女子의마음」가운데서 가장많은 화제를일으킨 이야기는 7월3일字에 발표됐던「딸 애를 울게 만든날」이었다。「딸 애를 울게 만든날」은 미처 예기하지못한 큰 반응을 일으켜 우리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따뜻한 連帶意識을 모두에게 확인시켰다。이글은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金昭姬씨가 어느 슬펐던하루를 고백한 것이었다。

둘째딸 아이에게 반장이되면 새가방을 사주기로 약속한 엄마는 딸이 반장으로 뽑혔지만 약속을지키지 못하고 밤늦도록 헤진가방을 꿰매놓는다。아침에 일어난 딸아이는 헌 책가방을 더이상 메지 않겠다고 투정을부리며 학교를가지않는 아이를 달래다가 지쳐버린 엄마가 아이의등을 몇차례 때리자 아이는 울며 도망치듯 학교로 달려간다。생활에지친 자신의 짜증으로 아이를때려서 울려보낸 엄마는 하루종일 자신을 후회하며 아픈마음으로「女子의 마음」을 썼다。

이글이 발표되자 수많은 사람들이『나도 어린날에 金昭姬씨의 딸 아이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는 편지와 誠金과 소포를 보내오기 시작했다。그에게 편지를 보내온 독자들은『따님에게 예쁜 책가방을 사주셔요』란는 글과함께 5천원을 넣어보낸 女高生도 있었고,『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그 어려움을 상상할수 있다』고 2만원을 넣어보낸 주부들도 있었다。

직접 책가방을 사서 소포로 부쳐준 독자들도 많았다。

金昭姬씨의 글에 나오는 둘째딸 이름은 李庭珉양(13)。현재 大田市 大文국민학교5학년 반장이며, 학급에서 1등을 차지하는 우등생이다。

「女子의 마음」은 6월부터 5편~6편을 한꺼번에모아 실어 한 페이지를 꾸미기 시작했다。「女子의 마음」에는 어느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않고 활용하는 알뜰한 주부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

가장많은 話題일으킨「딸애를 울게만든 날」

誠金·가방現物소포 全國에서 답지

「1원짜리의 가치」를 쓴 전옥순씨는『버스 승강대에 1원짜리가 떨어져있기에 돈이 떨어져있다고알려주니 버스안내양이 그냥 발로밀어내 버려고 문을 닫는 것을 보고 기가막혔던 일』을 적어보냈다。은행이나 슈퍼·마키트에서받는 거스름돈 1원짜리들 버리지않고 4백개를 모아놓고있는 그는『1원짜리를 만들려면 1원이상의 비용이들것』이라고 말했다。

仁川에서 사는 정숙영씨는 애연가인 남편의 담배값을절약하기 위해 집 집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들을 기회있을때마다 수집, 남편이 파이프담배로 피우도록 해서 1년간 3만원의 담배값을 절약한이야기를 써보내왔다。이밖에 헌옷으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히는 주부들과 커트빗을 사다가 아이들과 남편의 머리를 직접 커트해 준다는 주부들의 글이 많았다。

퍼머기술을 배워 이웃의주부들과 함께 서로퍼머를 해주고있다는 다정하고 알뜰한 내용도 많이들어왔다。

처녀시절이나 신혼초기의 自己의 모습과 오랜 결혼생활이 지난후 自己의 모습을비교하고 그변모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허전해하는「女子의 마음」도 많았다。

大邱에 사는 차은자씨는『무심히 앨범을 들추다가처녀시절의 빛 바랜 사진을보고 결혼생활 10년후의 자기모습이 얼마나 윤기를잃고있는가를 발견했다』는 허전한 마음을 투고했다。釜山에서살고있는 노병숙씨도 결혼반지를 장롱속에 보관했다가 10년만에 다시 끼어보니 손가락 마디가 너무 굵어져 반지가 들어갈 생각조차않았던일을 고백했다。

그는 남편과 연애중에 남편이 했던 어느 이야기를 회상하며 혼자쓰디쓰게 웃었다고한다。그의 남편은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예쁜 손을 가진 아가씨가 있었어。나는 그 아가씨의 손이 아무리 예뻐도 당신의손보다는 덜예쁘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으쓱해지던데…』라고 말 한적이 있었다。

「女子의 마음」에는 한국일보 연재기사였던「아내의 삶」과 관련해서 쓴 글이 적지않았다。「아내의 삶」에 광부의 아내로 인터뷰기사가 실린 김명순씨(경북문경군)는「女子의 마음」을 통해、수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고 성금을 보내온 사실을 알려왔다。그는「女子의 마음」을 통해『美國에서 사는 교포 한분은 휴가때 쓰라고 2백달러를 보내와 편지를차마다읽지못하고 울고 말았다』고 쓰고『이사회의 밑바탕에는 아직도 따뜻한 善意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종암2동에서 사는 주부 이현주씨도「아내의 삶을 읽으면」라는 글을투고,『내 나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으나, 이들 아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이들의 화려한 생활을 얼마나 부질없이 탐내고 부러워했는가를 깨닫고 크게 반성하게 됐다』고 고백하고『가계부를 적다가 적자지출로 짜증이날때는 언제나 그 착하고 성실하고 알뜰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떠올린곤 한다』고「女子의 마음」을 적어 보냈다。

◇지난1년간「女子의 마음」난에는 99편의 글이 실렸다。이 99편의 글은 우리사회의 人情과 世態를 엿보여주고있어 흥미를 이끈다。

낯설은 美國생활… 鄕愁 전해온 在美同胞들
하찮게 버려지는 1원짜리의 價値일깨운글도
우리社會 人情과 世態의 편모 잘그려

또한「女子의 마음」에는 美國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이 조국에 대한 鄕愁와 미국생활을 하며 겪은 사건을 전해오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다。

시카고에서 거주하는 李圭東주부는『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2세의이름을 앨버트니 리처드니 외국이름만을 붙여쓰는데, 2세의 血脈은 한국인이라는 점을 2세에게기억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한다』는는안타까운「女子의 마음」을 보내왔다。

뉴욕서 사는 손재령주부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힘세고 덩치큰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못해 학교가는것이 싫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쓰고『이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고 異邦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쓴 글을 보내왔다。

「女子의 마음」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어 투고한 글이 간혹 섞여있어 지적되기도 했다。

다른 신문·방송에서 발표된 남의 글을 빌어「女子의 마음」에 투고하거나、「女子의 마음」에 게재된 원고를 다시 다른 신문 방송에투고해서 중복발표되는 난처한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했다。「女子의 마음」은 한조각의 작은 글이지만 여성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心象을 담는 진정한 情이 어린 글이기때문에 독자들을 감동시킬수있는 것이다。조그마한 체험이라도 자기 자신의 것을 써야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다。【桂】

白頭山 天池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㉘

우리일행은 惠山鎭에서 한국인안내자10명과 말10마리의 도움을 받아야했다。

白頭山등정에 노련한 경험을가진 이들 안내자들은 각자 짐실은 말을 한마리씩끌고 갔다。말에 싣기 편리하도록 궤를 만들었다。짐궤는일행보다 하나가 많은 9개였다。말 한마리는 누구나 탈수있게 여분을 두었는데도 아무도 타지 않았다。모두 걷기를 희망했다。결국 말한마리는 왕복 8일간 별고생하지 않았다。

한사람도 다리아프다는 말을않고 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신화가 얽혀있는 신령스러운 산이 주는 감동때문이었던듯 하다。

白頭山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지 않았다。

처음엔 펑퍼짐한 야산길로 걷는 기분이었다。점차 올라갈수록 아름드리 수목과 짙은 초원이 한없이펼쳐진것을 볼수 있었다。

작은 사슴 산비둘기 같은 야생동물이 저만치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나 우리는 본래의 목적이 사냥이 아니어서 못본체했다。

안내자들은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는 길을 피했다。좀 더 돌더라도 다른 길을택했다。한번은 안내자들이 인기척이 난다고 경계하는 바람에 우리는 숨을죽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때 준비해온 총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실한 기억이 없다。다만 우리는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같은 수의 말을끌고 지나가는것을 보았다。그들은 강도가 아니고 장사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밤에 야영할때는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안내자들은 늑대와 표범이 많고 호랑이도 있다고 했으나 이들 짐승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樹林이울창하게 우거져 그런 짐승들을 볼래야 볼수 조차 없었다。

맑은湖水 치솟은岩石 壯觀

◇白頭山에 오르는 길은 정상에임박 가파른 등성이를 넘기까지는 펑퍼짐한 야산과도 같았다。

한여름에도 밤은 零下의추위…頂上엔 馬草도없고

이같은 수목도 天池를 중심으로 12~13㎞ 부근에 이르러서는 씻은듯 사라졌다。이는 화산대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됐다。

펑퍼짐해 야산을 지나는 것같은 등반길도 정상이 가까와짐에 따라 가파른 등성이 길로 변했다。마치 여기가 맨꼭대기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 일행이 정상에 오르기 전날밤 야영했던 곳은 압록강원류가 흘러내린다는 맑은 샘물옆이었다。

여기서 잘룩한 등성이를 올라섰을때 그렇게 기다리던 호수가 우리앞에 펼쳐졌다。天池였다。우리는 그날중으로 등성이 오른편에 높이 솟은 최고봉이라는 天王峰과 그왼쪽의 봉우리를 전부 올라갔다。

이 하늘빛의 맑은 호수 주위로는 높이 수백미터의 우뚝우뚝한 암석들이 신비의 극치랄까 장엄한 형상이랄까 형용할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12㎞에 달하는 호수주변의 붉고 누렇고 희고 푸르고 또 초록빛의 색깔들이 한데 어울려 호수에 비쳐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중의 장관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 일행은 이 天池주변에서 이틀밤을 야영했다。낮기온은 영상이었지만 밤에는 한 여름 인데도 영하로 내려갔다。

한국인 안내자들은 짐을 내려주곤 말을 끌고 수목이 있는데로 다시 내려갔다。정상근처에서는 말이 뜯어먹을 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4金」믿을수 없다

主婦클럽聯、반지收去 시험分析

不純物섞이고 重量미달일쑤 값도곳에따라 3천여원씩差

생활용구와 액세서리로 널리 애용되고있는 14金이 지역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고 대부분이 함량및 중량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클럽연합회 (회장 鄭忠良)는 지난10월1일~16일사이에 소비자고발품 (3개)과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앙사·경보당·세광당·보금장등에서 9개의 반지를 수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시험 분석을의뢰했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구입처마다 각기 가격이 달라 보통 3·75g 1돈쭝에 3만2천원~3만5천원으로 차이가났으며 백화점의경우 2·8g짜리반지가 3만4천원 (S백화점)、1·87g짜리가2만8천원 (L백화점) 으로 가장비쌌다。

또 구입시의 중량과 실제 중량에 엄청난 차이가나 3돈쭝 (11·25g) 짜리 (소비자고발품 S산) 가 7·14869밖에 나가지 않는가하면 2·8g짜리(S백화점) 가 1·893g、3·75g짜리 (C사) 가 3·50785g밖에 안되는등 거의대부분이 중량미달품이었다。

14K、18K는 원래 금·은·동으로만 합금하여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일부제품은24K를 풀어서 불순물인 스테인리스、신주、주석등을 섞어 합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점포라할지라도 자체내에 공장이 없고 단지「고물상 허가증」을 취득하여 상점을 개업하고있어 귀금속에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완제품은 무조건 공장에 일임하는 위탁업에 지나지않아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지않다。또 기준미달 상품을 고발했을때 상점에서 공장으로 책임을 회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4K는 금덩어리로 직인이 찍혀 나와 상점에서 모양을 만들어 판매가 가능하지만 14K、18K는 24K를 풀어서 만들어야되므로 문제가 생기게된다。따라서 18K와 14K도 금괴로 규격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8譜166~212 (각5시간 덤5집반)

白 (6段) 徐能旭 〈0勝2敗〉
黑 (7段) 徐奉洙 〈1勝2敗〉

보면 이무렵의 徐6단은 평생의힘을 다하는 무아지경。시초 좌변의접전을협상한뒤 상변에서 혼전을벌이다가 우변이 일대변화를 일으켰고 다시 상변에 옮아간 패싸움은 어쨌건 白이 黑을잡는데서 해소되었으나 이번에는 중앙일대가 최후의 승부처로 부각되어 싸움은 갈수록 치열하다。다만 문제가있다면 白은 여전히 쫓기는 입장인데 반하여 黑은 여유가 만만한 점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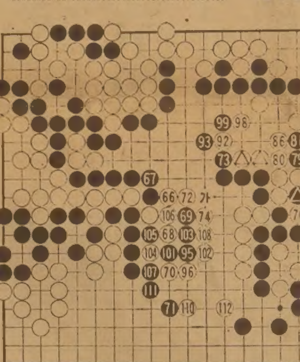
徐6단이 집을 불태우듯이 하는 저항은 실로 처절한 바가있다。白66、68의 돌변서주는 그러나 黑69로 들여다보자、또한차례 육탄전으로 발전된다。단지、黑69에 관하여 국후검토때의 중론인즉『白70자리 뛰어서히 공격해야 좋았다』고하지만 徐7단으로서는 이경우 온건한수법보다는 속전속결쪽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하지만 白70이 임기의 好着이어서 74까지 일단 멋지게수습되고보니 黑으로서 닫는 발길에 돌부리격인가 싶다。

白96失手로 俄然危機

또더욱『黑75는 80자리를 끊어 △표 2점을 잡는정도로 충분할 것 같다』는 일부기사의 의견이지만 徐7단은 우변白을 몽땅 잡지않으면 지성이 풀리지 않는다는식。물론 이하黑87까지의 패싸움을 내다보고서 결행한 총공격이다。

이리하여 다시금 死活有關、승부결정의 패싸움이다。한데 徐6단은 갑자기 오기아닌 착각이 생겼는지、黑95때 白96이 문제였다。이수로 101자리를 이었더라면 黑도 낙관불허、다시금 혼전이 벌어졌을 것이다。96의 실수로인해 101이하 111까지 뒤자「가」로 끊기는수도 남고 112의후수로도 중앙이 위협하니 일거에 열세를 자초한셈이다。

97…▲、88、94、100…76、85、91、109…104。【一凡】



現代人의 健康百科 〈294〉

결핵성淋巴腺炎

옆목에 콩·팥만한 알 연결되어 부은채 2~3週

結核症의 형태는 보통 폐결핵과 결핵성 늑막염, 그리고 결핵성임파선염의 형태로 발병되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소녀시기에는 임파선결핵으로 발병하는경우가 많다。「연주창」이라 불려온 결핵성임파선염은 비단 목부위 (頸部) 임파선만 침범하는것이 아니고 폐문임파선, 흉곽내종격동임파선, 혹은 목강내임파선등을 침범하여 전신성임파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임파선이 경부임파선과 폐문임파선으로 되어있다。

어린이에게 감염되는 일차결핵감염형식의 초기결핵때는 주로 임파선이 침범되어 임파선종창이 나타나고 성인 결핵은 주로 肺를 침범하는 특성을 보이고있다。그래서 결핵성임파선염은 어른에서보다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년기에 많은것으로 되어있다。

임파선염의 증상은 감기증상을 앓고난 끝이거나 전신쇠약감등 피곤하고 나른한 시기가 지난후 양쪽 옆목에 콩알·팥알 혹은 손가락끝크기의 임파선이 염주알연결한 모양으로 부어오르게 되는데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가 만져지는것이 보통이다。一過性인「바이러스」성 상기도질환이나 연쇄상구균의 감염에 의한 편도선염후에도 임파성으로 임파선이 부었다가 가라앉을수도 있는데 결핵성일때는 2~3주일이상 계속 부은채로 만져지는것이 보통이다。성인과 장년층에서 간혹 아주 딱딱하고 고정되어있는 임파선이 만져질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임파선종창은 결핵성이아닌 다른종류질환 (폐암·임파腫瘍) 의 증상일수 있으므로 외과적으로 제거후 조직검사를 해볼필요가있다。

결핵성임파선염의 치료는 폐결핵치료와 거의 같다。즉 폐결핵치료때 쓰는 같은종류의 약과 주사를사용하게된다。한가지 다른것이있다면 폐결핵때보다 치료기간이 길다고하는것이다。

그리고 내과치료에 반응안하는경우엔 외과적으로 제거수술을 하게된다。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수술을 해야할 경우가 점차 적어지고있다。간혹 어린이의 결핵성임파선염이 非定型性결핵균에 의해서 생겼을때는 치료에 반응을 덜 보이는것으로 되어있어 임파선염인 경우도 원인균규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다。

결핵성임파선염은 드물게는 乾酪化한 임파선이 膿瘍을 형성하고 이것이 터져나와 피부瘻孔을 형성하여 진물을 내고있는 경우도있어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할때가 있다。임파선의 종창이 아주 커서 주위중요장기에 압박을 하는 경우엔 물론 외과적으로 제거수술을 하는것이원칙이다。

金建烈

【醫博·서울외대내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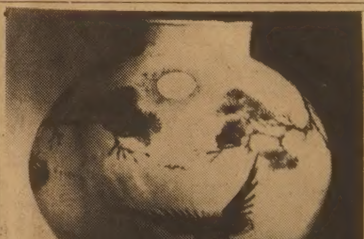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저녁 다됐어요" "숙제를 할 시간이 결코 넉넉지가 않아요" "만약 네가 계획을 좀 더 잘 짰더라면…?" "그래봤자 형편이 더 나아질게 없다구요?!"



◇미국의 자선사업가이자 미술품수집가였던 故록펠러3세가 소장했던 朝鮮白磁。이 백자는 다른 동양미술품과 함께 곧 일반인들에게 전시되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제 1 회 국제아동미술제 김미연孃「서울역」大賞

汎아시아協 주최

범아시아협회가 주최한 제1회 국제아동미술제에서 대상은 김미연양 (장위국교4년) 의「서울역」이 차지했다。16개국이 참가한 이 국제미술제에는 외국작품 1백89점과 국내작품 1만2천1백63점이 접수됐는데 외국인금상은 아쇼크·파란즈페 (인도) 외 2명에게 돌아갔다。입상작품은 82년 1월28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 전시된다。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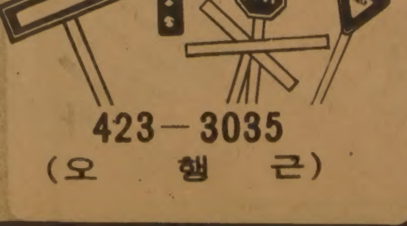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토론토시

공지사항

토론토시 고령자 주택주는 100불 세금면제 자격을 갖을 수 있읍니다.

- 당신이나 당신배우자 또는 둘중에서 연령이 1982년3월31일전에 65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1982년3월31일에 매월 연방정부 보증 소득 보조료를 받는사람.
- 적어도 5년간 1982년3월31일에 선행해서 시에 주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부동산에 시세료를 부과하고 있는사람

* 당신은 1982년 고령자 주택주를위한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읍니다. 만약 당신이 자격은 있으나, 신청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더 이상의 소식을 알고자 하시는분은 시 인사부 367-7036으로 전화 하십시요. 비록당신이 작년에 세금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1982년도 분에는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기억하십시요. 반드시 세금면제 신청은 1982년3월31일 이전에 해야합니다.**

Roy V. Henderson
City Clerk

刑失效者 "차별人生 산다"

法律施行된지 1년…社會認識 여전히 냉냉

불필요한 「判決확정증명」 요구
해외就業선발서 除外 횡포
業體선 "治安본부요구다" 발뺌만

형(刑)이 이미 실효된 사람들이 여전히 전과자대접을 받고있다.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지 1년이 지났어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폭행이나 교통사고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미한 사항의 전과자들이 형집행종료후 재범없이 일정기간이 지나고도 취업이나 이민수속을 밟을때 부당한 제한을 받거나 불필요한 판결확정증명 제출을 요구받는등 「차별인생」을 산다.

정부는 지난해12월18일 전과자들의 재범을유발하는 전과낙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필요이상 사회생활에서 신분및 자격제한을 받는 여건를 없애기위해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었다.

그러나 전과자들도 취업시켜야할 해외진출 건설업체들의경우 해외취업기능공을 모집하면서 법에의해 엄연히 전과가 말소된 기능공들에게도 판결확정증명(판결문등본, 약식명령등본)을 요구,누범자라는 이유로 선발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치안본부 역시 해외취업이나 이민을위해 신원조회를하는 사람가운데 처분미상전과가 있으면 실제로는 이미 형이 실효된 사람인데도 일일이 확정증명을 떼다가 자신의 형실효를 증명토록 요구하고있는 형편이라는 것.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징역·금고형은 재범없이 10년, 벌금형은 3년, 구류·과료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과기록이 없어지고 떳떳하게 정상인으로 사회생활을 누릴수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가 실생활에서는 전혀 반영되지않아 취업의 꿈에 부풀었던 전과자들은 절망속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검 기록관리과에 판결문등본등을 발급받기위해 찾아오는 민원인은 1일평균 30여명.

이가운데 절반은 법에따라 전혀 필요없게된 증명을 떼러오는 해외취업희망 기능공들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金龍圭씨(44·서울西大門區延禧洞533의169)는 지난 69년 사소한 싸움끝에 폭행혐의로 입건돼 벌금1만원을 선고받았고 72년에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역시 벌금 1만원을 선고받은 소위 전과기록소유자다.

金씨는 최근 D개발을통해 리비아건설현장에 취업하기위해 서류를 제출할때 회사로부터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검찰에서 판결문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을 떼어야했다.

金씨는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전과가 자동말소됐기때문에 약식명령등본 제출이 필요없는 대표적인 케이스.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는 『치안본부에 전과조회를 할때 전과자에 대해서는 모두 판결문등본을 요구하기때문』이라고 발뺌하고 있는데 사실상 치안본부는 처분미상전과에 대해서만 자료보완(판결문등본제출)을 요구할뿐 법에따라 실효된 전과는 컴퓨터조회결과 나타난다해도 통보하지도 않고 당연히 「출국적격판정」을 내려 통보해 주고 있다.

기업체에서 일률적으로 판결문등본을 요구하는것은 오히려 치안본부에 조회해 본다해도 말소전과는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아예 모든 취업희망기능공들에게 일률적으로 판결확정증명을 요구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것이라고 할수 밖에없다.

운전사인 安永吉씨(39·金浦郡陽村面馬松里)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73년과 74년 두차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각각 벌금 7만원과 8만원을 냈던 安씨는 해외취업을 위해 모건설회사의 기능공모집에 응모했더니 회사에서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을 발급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安씨의경우역시 법에의해 전과가 자동말소됐으므로 증명이 필요없는 케이스다.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싱가포르에 취업하려던 산소제조기능공 房漢翊씨(39·서울東大門區淸涼里洞168)도 73년에 있었던 벌금형전과에대한 약식명령등본 제출을 요구받았다.

각 업체들은 이밖에도 『노동부규정에 따라 폭력·강도·살인·마약·도박등의 파렴치범은 형실효에 관계없이 해외에서의 사고방지를위해 해외취업기능공 선발에서 제외시키고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법제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이것은 법제정목적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있다.

또 국위손상을막기위해 형실효에 관계없이 선별처리한다해도 전과증명을 일일이 민원인이 해야하는것도 모순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의 신원조회업무처리에도 문제점이있다.

치안본부는 「형실효등에관한 법률」 규정에따라 70년12월31일 이전의 처분미상전과는 전부폐기, 무혐의 종결처리하고있으나 71년이후의 처분미상전과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 형이 실효됐는지여부에관계없이 판결확정증명을 요구하고있다. 【崔奎植기자】

	12月31日	1月1日	2日	3日	4日
서울경기 충청영동	가끔흐림	맑음	맑은후흐림	흐리고한때눈	가끔흐림
호남 제주	흐리고한때눈	맑음	맑은후흐림	흐리고한때눈	흐리고한때눈
영남	흐리고한때눈	맑음	맑은후흐림	흐리고한때눈	맑음

連休마지막날 눈
기온溫和·4일 零下9도

新正연휴동안 우리나라의 날씨는 1일과2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맑겠으며 3일을 전후해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관상대는 우리나라의 동서로 걸쳐있는 기압골이 그대로 머물러있어 31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겠으나 新正인 1일은 맑다가 3일엔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온은 1~3일까지는 예년에 비해 2도가량 높다가 4일부터 떨어져 중부지방은 최저 영하9도까지 내려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상은 3일을 전후해 파도가 높게 일것으로 보인다.

승려가 億臺 토지詐欺
법상종總務院長구속 "사찰대지 싸게 사준다"

서울西部경찰서는 30일 싯가 8억원상당의 사찰내 대지 2천5백여평을 싸게살수있게해주겠다고속여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姜周福씨(46)와 감찰부장 申孝均씨(55)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서울恩平區葛峴洞314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전신도회장 朴淸谷씨(60)의 부탁을 받고 成周文씨(46·大田市中區선화동356)에게 사찰내 싯가8억원상당의 대지를 2억5천만원에 살수있게 해주겠다고속여 1억원을받아 챙겼다는것.

日收여인 殺害暗葬
專門大교수가 犯人

【晉州=聯】일수놀이 여인 살해암매장사건을 수사중인 경남晉州경찰서는 30일 晉州농업전문대 축산과부교수 趙永來씨(39·晉州市江南洞108의25)를 폭행치사및 사체유기혐의로 검거,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11월11일 하오3시께 돈을 빌어쓴 晉州市水晶洞 姜모씨의처 金德子씨(31)로부터 빚독촉을받고 이날 하오6시30분께『빌린돈을 갚겠다』며 金씨를 晉州市七岩洞 농업전문대로 불러낸뒤 南江강변도로를 걸으면서 채무관계로 시비끝에 손바닥으로 金씨의 입을막아 질식시킨후인근 대홍직물 쓰레기처리장에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趙씨는 이날 金씨를 만나 南江강변도로를 걷다가 金씨가 자신의 멱살을잡고 욕을 퍼부으면서 빌려간 1백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金씨의 배를 때려 실신케한뒤 도로변에 쓰러져 신음하는 金씨를 행인과 차량통행이 드문 으슥한 곳으로 옮겨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질식시켜 숨지게했다.

趙씨는 金씨시체를 1백여m떨어진 대홍직물 쓰레기하치장으로 옮겨놓고 전문대후문으로가 수위실근무자인 高모씨(40)로부터 손전등과 삽을빌려와 쓰레기장에 약50㎝깊이로 구덩이를파 시체를 묻은후 쓰레기로덮어놓았다.

金씨의시체는 숨진지 47일만인 지난27일 대홍직물고용원 姜지복씨(72·晉州市七岩洞27의4)에 의해 발견됐다.

姜씨는 이날 쓰레기장보수공사를위해 흙을파내던중 암매장된金씨시체를발견했다.

경찰은 지난27일 金씨가실종되던날인 11월11일 친구 정모씨(29·여)에게 『趙교수에게 돈을 받으러간다』고 전화를한 사실을확인하고 金씨와 여러차례 정을통한뒤 1백만원의 돈까지 빌어쓴 趙씨를 이날하오9시께 연행, 추궁끝에 30일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趙씨는 지난69년 晉州농업전문대조교수가 된뒤 78년10월1일부교수로임명됐었다.

學力考査성적 流出경위 調査
"관련자 罷免不辭"

문교부는 30일 감사관실 직원을동원,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성적분포가 발표예정일전에 유출된데대한 경위조사에 나섰다.

문교부는 조사결과 유출자가 밝혀질경우 공무상기밀누설등의 책임을 물어 파면·해고등을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東京 百83弗·LA 8百34弗
國際항공요금 引上

교통부는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선항공요금을 내년 1월5일부터 여객은 2~9%, 화물은 3~10%씩 인상토록 승인했다.

이번 항공요금인상은 지난 4월1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PA)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단체여객에 대해서는 3·1%에서 최고 37·2%할인해주도록 허용했다. 조정된 국제선2등기준여객운임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 현행요금·단위 달러)

▲서울-東京=183(168)8·9%▲서울-臺北=227(216)5·1%▲서울-홍콩=395(376)5·1%▲서울-방콕=557(549)3·1%▲서울-제다=1249(1188)5·1%▲서울-파리=1517(1487)2%▲서울-LA=834(794)5%▲서울-뉴욕=1125(1047)7·4%

심장병 手術후 "달리기도 1等했죠"
"亨道군 最高의 해"
"티없이 맑고 활달"
체중 2kg늘고 키6cm 자라
2학기 복학 成績1등 여전
이젠 級友들 알아주는 축구선수

또 한해가 간다. 그러나 梁亨道군(11·於義국교5년)에게는 아쉬움이 한점도없는 세밑이다. 아니 보람찬 한해였고 새희망이 샘솟듯하는 새해를 기다리는 준비의 해였다.

한국일보의 보도를 인연으로 漢陽대학에서 심장병 수술을받고 지난7월4일 『새심장』『새얼굴』로 귀향한 亨道군은 5개월동안 정양한끝에 놀랄만큼 건강해졌고 학교성적도 5학년에서 1등을 차지할만큼 좋아졌다.

2학기부터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한 亨道군은 수술후 보양끝에 체중은 27kg으로 2kg이 늘었고 키는 1백43cm로 6cm나 자랐다. 공백기간을 메우기위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은 평균 80점이상으로 5학년 18명중에서 여전히 1등이다.

담임교사 金鍾洙씨(27)는 『성격도 전보다 더 활해졌다』며 대견스러와 했다.

아버지 梁相俊씨(46)는 당초 결심대로 각계의 성금중 일부를 於義국교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지난6월17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銅雀區약사회(회장 金義燮)에서 준 송아지 1마리와 현금60만원으로 1백만원을 만들은것. 梁씨가 회장을 맡고 柳慶九장(55)이 고문인 이장학회는 지난8월1일 발족, 5학년생 18명이 내후년 중학교에 진학할때 등록금을 대주기로 했다.

梁씨는 亨道군이 귀향한 이후 주민들과 뭍에서 찾아오는 친척등 손님들을위해 여러차례 잔치를 벌였다. 내놓을 음식이 변변찮은섬에서는 이 접대비용도 상당한것이지만 梁씨는그래도 지난1년이 즐거웠다는것.

8월·11월 두차례 검진을 받기위해 서울에 갔던 亨道군은 이제 내년 여름방학때나 한번더 병원에 가면 될정도로 건강이 좋아져 정상어린이보다 더 건강하다.

주위어른과 친구들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亨道군은 오히려 다른사람들이 걱정이될 정도로 쾌활하게 뛰어놀고있다.

쉬는시간이면 꼭 서울漢陽국민학교어린이들이 선물한 축구볼로 편을갈라 축구를 한다. 급우들 사이에서는 이미 서로 한편에 넣고싶어할 만큼 알아주는 「선수」가 됐다.

지난 10월26일 운동회때는 3명이뛰는 경주에서 1등을 차지했다.『내가 이만큼 뛸수 있구나』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뒤쳐진 친구들이 자기가 1등한것처럼 좋아해주는 것이 더욱 기뻤다.

건강에 자신을 갖게되자 집안일도 잘 거들어 어머니 黃信子씨(43)가 성가실정도다. 물을 길어오고 장독을 옮기는등 몸놀리는것이 즐거운 눈치라는것.

한가지 걱정은 수술전과 크게 달라진것이 없는 눈. 윗눈꺼풀을 끌어올리는 교정수술을 받은 두눈은 앞으로 3~4개월 더 기다려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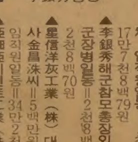
亨道군은 안과진찰을 받기위해 그동안 부산·馬山에 한번씩 다녀왔다.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때문에 漢陽大병원 안과에서 준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수술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大邱등지의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있는 亨道군은 그바람에 문장력도늘어 이제 맞춤법이 틀려 부끄러운 일도 없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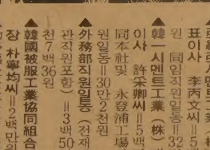
제2의 탄생과 섬마을에 희망을 안겨준亨道군은 보람찼던 81년을 나름대로되새기며 새해에도 큰배의 선장이될 꿈을 키워나갈것을 다짐했다. 【於義島=任萬澤기자】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하는 亨道군。(큰체크무늬셔츠차림) 亨道군은 그동안 건강을 되찾고 실력도늘어 학급에서 1등을 차지했다。【白炯寅기자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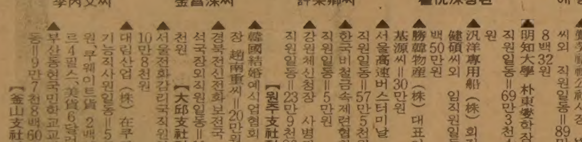
사랑의손길
海軍장병2천8백만원
체신부 2천7백만원



李銀秀총장



◇해군 정훈감 許萬元대령(左)이 본사 權赫昇편집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있다。



崔侊洙장관 許采卿씨 金昌洙씨 李丙文씨

▲崔侊洙체신부장관외在京체신관서 공무원및 산하법인체 임직원일동=2천7백17만7천8백79원
▲李銀秀해군참모총장외 해군장병일동=2천8백56만8천70원
▲星信洋灰工業(株)대표이사 金昌洙씨=5백만원 同임직원일동=34만2천원
▲亞細亞시멘트工業(株)대표이사 李丙文씨=5백만원 同임직원일동=32만원
▲韓一시멘트工業(株)대표이사 許采卿씨=5백만원 同本社및 永登浦工場임직원일동=30만2천원
▲外務部직원일동(전재외공관직원포함)=3백50만9천7백36원
▲韓國被服工業協同組合이사장 朴寧均씨=2백만원
▲勤勞福祉公社사장 崔龍洙씨외 직원일동=89만7천8백32원
▲明知大學 朴東墩학장외 교직원일동=69만3천4백50원
▲汎洋專用船(株)회장 朴健碩씨외 임직원일동=1백50만원
▲勝韓物産(株)대표이사李基源씨=30만원
▲서울高速버스터미날(株)직원일동=57만5천원
▲한국비철금속제련협회 임직원일동=5만원
▲강원체신청장 사병권씨외 직원일동=23만9천80원 【원주支社접수】
▲韓國結婚예식업협회 이사장 趙南重씨=20만원
▲경북전신전화보전국 김홍석국장외직원일동=11만8천원 【大邱支社접수】
▲서울전화감리국직원일동=10만8천원
▲대림산업(株)在쿠웨이트기능직사원일동=5천9백원,쿠웨이트貨 2백16디나르4필스,美貨6달러
▲부산동현국민학교교직원일동=9만7천8백60원 【釜山支社접수】

한국일보 詩壇

떠나는 것은

이 준 기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
모두 일어나 입 맞추어라,
기다리면 기나긴 하루 해
소리없이 떠나는 삼백예순날
진실을 위해 눈물 흘린 일 없는
너희의 황량한 마음밭(心園) 위에
지금은
한방울 눈물
이슬지게 하여라。

떠나는 것은 곧 맞는 것이거늘,
잃는 것은 곧 얻는 것이거늘,
잃으며 얻으며 울고 웃고
떠나며 맞으며 울고 웃고
그리하여 여기
비명(碑銘) 없는 아득한 세월의 무덤,
지금은
그 언덕에
영롱한 꿈의 꽃 한송이
망울지게 하여라。

떠나는 것은 경건한 것
모두 고개 숙여 기구하여라,
기다림 없는 긴 긴 하루 해
마음의 골방 삼백예순 날
아, 그대들
지금은
그리움의 참뜻
깨우쳐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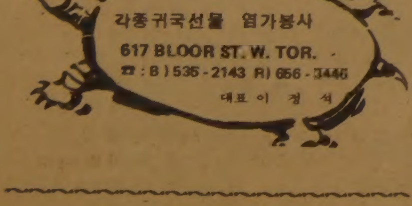
마지막 햇살 받으며 반짝이는 꿈여울
이제사 소리 내어 섧게 흐르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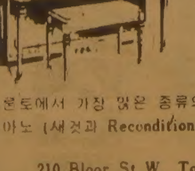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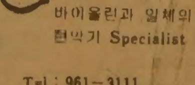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리
☎ : 533－2361

Grant Brown
특별세일(매출)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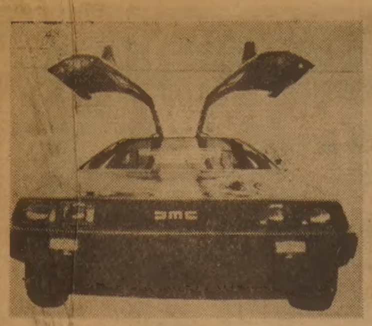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올 美市場서 人氣끈 히트商品 (紙上展)

급속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건강에 전혀 害를 끼치지않는 無公害식품들이 선을보여 히트하는가하면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하는 고도기술 집약상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빠른 기술개발에의한 새로운 상품들은 앞으로 좋든 이어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할 것이고 不況을이기고空前의 히트를 칠것으로 보인다. 올해 美國市場에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히트상품을 모아본다. 【朴昊銀기자】



◇安樂승용차

◇安樂 승용차

드·로론자동차회사가 개발한 최신형승용차. 이차는 마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다. 자동차판매상들은 이차를 타면 달콤한 꿈을 꿀수있다고까지 선전하고있다. 에어컨디션장치가 있고 스테레오가 설치되어있는것은 다른 승용차와 다를바가 없으나 자동변속장치가 부착되어있어 이처럼 안락하다고. 갈매기날개모양의 문과 보디가 플래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

◇새糖類이퀄

◇새糖類「이퀄」

美FDA(식품위생국)가 최근 市販을 허용한 새로운 糖類. FDA는 이당류가 몸에 해롭지않을뿐더러 칼로리가 적은 당류라고인정, 지난 9월부터 市販을 허용했다. 이당류는 이를 보호하고뒷맛이 개운한 특징을 갖추었다. 이퀄한봉지는 차숟갈로 두스푼의 설탕을 넣는것과같은 加糖효과가 있다는것.

◇事務用 분석기

제록스社가 개발한 사무용 분석기이다. 많은 기억장치를 갖고있는 이사무용분석기는 경영지표 예산 시장조사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 처리해준다. 매출액추이를 알고싶으면 그에 필요한 단추를 누르면 도표등이 스크린에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분석기를 구비하면 회계사나 철을보관하기위한 캐비닛등이 필요없어 예산이나 인력이절감된다고. 값은1만6천달러선.

◇비디오·카세트

◇비디오·카세트

VTR로 구태여 녹음을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나 영화를볼수있는 비디오·카세트이다. VTR를 사는것보다 값이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이 비디오·카세트를 선호하고 있다. 1백75개의영화가 녹화되어있는 비디오·카세트의 개당 가격은 19달러~28달러에 이르고 있다. RCA는 이카세트로 올해 2억달러상당의 매상고를 올렸다.

◇事務用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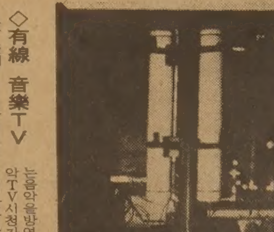
◇淨水장치

폐수를 맑은 물로 만드는 정수장치이다. 탱크에는 6백갤런의 폐수를 담을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4백갤런 상당의 폐수를 자동처리한다는 것. 퓨어·사이클社는 콜로라도州에 16기의 정수장치를 설치했고 앞으로 서부의 3개州에 이정수장치를 보급시키로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폐수를 이용, 食水등을 쉽게 얻을수있는 장치이다. 값은 1만8천달러.

◇有線 音樂TV

요즘 美國에서 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 유선음악TV. 이유선TV는 24시간동안 10대에서부터 30대들이 좋아하는음악을방영한다. 현재 이음악TV시청가입자는 2백50만명에 달하고있다한다. 레코드회사가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로 유명가수들의 노래나 연주등을 방영한다고.

◇有線音樂 TV



◇淨水 장치

聾啞者들위한 手話빵집 등장
高麗堂본점 장애자 不便덜어

농아자를위해 手話로 빵을 파는 제과점이 생겼다. 서울시내 종로2가에 있는 고려당본점은 40명의 판매사원에게 手話교육을 실시, 맹아자 고객이찾아와도 아무런 불편없이 빵, 양과자, 아이스크림, 우유, 주스등 다양한 메뉴를 手話로 판매 (사진) 하고있다. 고려당측은 올해가 신체장애자의 해이므로 맹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수화교육을실시한것이며 앞으로 지점판매원들에게도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있다.

李永河 500m 한국新
李南順 여자부 優勝
스프린트選手權

81~82년 빙상시즌 오픈겸 기인 제8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선수권대회가 30일 泰陵스케이트장에서 속개돼 남자부에서 李永河(대우), 여자부에서 李南順(강원대)이 각각 선수권을 차지했으며, 한국신기록 1, 대회신기록 3개가 수립됐다.

李永河는 저력을 발휘, 2일째의 5백m, 1천m서도 최선두를 기록함으로써 종합점수 159·230점으로 국내스케이팅 1인자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여자부의 李南順은 첫날 5백m 3위, 1천m 2위의부진을씻고 이날 5백m 44초12, 1천m 1분31초97로 선두에나서 종합점수 183·995점으로 우승했다.

李永河는 이날 5백m에서 81년 동계체전에서 세운 자신의 한국기록 38초99에 0.13초 앞선 38초86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1천m에서도 80년 자신의대회기록 1분21초82를 1초22앞선 대회신을 작성, 이번대회 한국신1, 대회신2개를 기록했다.

첫날 종합점수에서 李永河의 뒤를 바짝 뒤쫓던 羅潤洙(단국대)는 이날 5백m에서 40초42로 4위, 1천m에서 1분22초58로 2위에그쳐 종합3위에 머물렀다.

전날 중간성적 3위였던 孫世源(한국체대)은 이날 5백m에서 李永河와한組로 호조를보여 39초24의 대회신기록으로 2위를, 1천m에서도 1분22초29로 2위를차지, 종합 2위로 올라섰다.

◇최종일 전적

▲남자 5백m=①李永河(대우) 38초86 한국신(종전 38초99) ②孫世源(한국체대) 39초24 대회신(종전 39초81) ③韓明燮(한국체대) 40초08 ▲여자 5백m=①李南順

◇여자부 스프린트 선수권을 차지한 李南順의 역주。

金在博·李海昌등 28명 MBC
金宇烈·尹東均등 26명 斗山
프로野球 두팀 드래프트

서울MBC靑龍과 大田斗山OB베어스팀의 선수진용이 드러났다. 두팀관계자들은 29일 하오 95명의 서울지역프로희망선수들을 대상으로 2대1비율의 드래프트원칙에 합의, 3시간여의 줄다리기끝에 MBC가 金在博 李海昌등 28명을, 斗山은 朴哲淳 金宇烈 尹東均등 20명과 申慶植등연고지(大田)선수 6명을 포함, 26명을 선발했다.

◇MBC(28명)

▲투수=河基龍(商銀) 李光權(韓電) 柳鍾衆(第一銀)、金時哲(浦鐵) 車濟愛(롯데) 鄭淳明(韓化) 李吉煥(延世大) 金正鎬(韓一銀) ▲포수=申彦皓(經理團) 柳承安(韓一銀) 金容雲(經理團) 崔正基(롯데) ▲내야수=金在博(韓化) 金龍達(韓電) 鄭永基(롯데) 李光殷 朴在天(星武) 金容允(農協) 金仁植(롯데) ▲외야수=李海昌·金奉起(롯데) 李鍾道(第一銀) 崔正雨(韓電) 鄭赫鎭 俞大成 李源寧(浦鐵) 柳濟龍(商銀) 宋榮雲(農協)

◇OB베어스(26명)

▲투수=朴哲淳(在美) 金賢洪 桂達鎭(이상롯데) 朴相悅(浦鐵) 黃泰煥(韓電) 鮮于大泳(第一銀) 姜哲元(農協) 宋容成(農協) ▲포수=曺凡鉉(仁荷大) 金卿文(高大) 鄭宗鉉(漢陽大) ▲내야수=金鎭弘(仁荷大) 申慶植(經理團) 金光洙(農協) 楊世鍾(第一銀) 具千書 柳志烜(이상商銀) 鄭國煥(韓一銀) 朴鍾鎬(大田高) ▲외야수=金宇烈(第一銀) 尹東均(浦鐵) 金裕東 李洪範(이상韓化) 李根植(經理團) 李根植(漢陽大)

휴대품많아 通關더디다

10월말 海外旅行者 35만 6 천명

數量·價格싸고 잦은말썽
關稅 제대로물면 國內價보다 비싸
現地價10만원까진 非課稅
50만원초과엔 簡易稅率적용 3월부터

올들어 정부가 해외진출에대한 문호를 더욱 개방함에따라 국민들의 해외나들이가 빈번해지고 있다. 해외여행자 출국동향을보면 지난해는 1년간 33만8천8백40명이던것이 올들어는 지난10월말현재 35만6천58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실적을 넘어서고 있는것이다. 中東취업자등 해외진출 인력이 별로 늘지않고있는 현상황에서 출국자가 크게 증가하고있는것은 그만큼 일반해외여행자가 많아졌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여행자가 늘어나고있는데다 오는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등을 감안할때 공항통관업무는 국제수준의 간소화, 신속화가 요구되고 있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관검사 1인당 소요시간은 평균3분으로 선진국의 2분 수준에 비해 상당히 더디다. 우리나라 해외여행자들이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오는것이다. 카메라 카세트 라디오에서부터 의류 화장품 약품 영양제에 이르기까지 물품도 다양하고 수량이 많다보니 세관통관과정에서도 세금을 많이 매긴다느니, 검사원이 불친절하다느니등등 세관원과 여행자들간의 입씨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여행자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것. 여행자들이 통관요령을 미리 터득함으로써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도 받을수있고 수속도 빨라지는것이다.

◇간이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1	주류	190%
2	진주·귀석·반귀석및이들의제품	80%
3	모피및동제품, 별갑·산호·상아·호박및이들의제품, 오락용품과 골프용품	70%
4	코피, 코코아, 연초, 귀금속및 동제품, 수상스키, 사진기와시계	60%
5	음료, 녹용, 자양강장품, 화장품, 용단, 모직품, 조명기구, 가정형전기기기, 식탁용품및주방용품, 가구, 촬영기와영사기	50%
6	식료품, 수지제품, 고무제품, 피혁제품, 섬유제품, 장식용품, 위생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가연용구, 악기, 낚시용구, 수렵용구, 완구, 운동용구, 필기용구와서화용구	40%
7	수리선박	110%
8	기타	130%

통관의 말썽은 거의가 입국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일어난다. 입국할때 휴대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는 장소에서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면되고 보석, 귀금속류, 고급시계, 카메라, 밍크등 고급毛皮제품, 무기류등은 세관신고서에 기입해서 제출해야한다. 해외여행중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타고온것이 아닌 다른 배나 항공기 우편으로 부쳤을때는 본인이 입국한뒤 6개월(日本 臺灣 홍콩지역은 3개월)내에 도착한것만 여행용품으로 인정받게된다.

입국할때 휴대품중 ▲의류 화장품처럼 여행중 사용한필요가있고 또 사용한것으로인정되는 신변품▲본인의 직업상 필요에따라 사용중인 휴대식 직업용품▲출국할때 세관에 신고하고 갖고나갔던물품▲술 1병(해외교포는 2병)▲궐련 10갑, 엽궐련 25개비, 파담배 1백g등은 세금을 물지않고 통관된다. 이밖에 이들 면세물품을 제외한 기타물품의 총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이하일때는 추가적 면세통관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중 국헌을 문란케하거나 공안풍속을 해치는 각종물품, 정부기밀누설이나 첩보에이용되는물품, 화폐나 유가증권등의 위조품·변조품등은 절대적 수입금지품목이나 5㎡이상의 種苗, 非法定계량기, 외국산컬러TV나 VTR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밖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물면 통관된다. 전축TV(컬러TV는 6개월이상 체류한 사람에 한함)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소제기 에어컨디셔너 녹음기(1개당 국내도매가격 20만원이상 카세트포함) 카메라(국내도매가격20만원이상인것) 고급시계(〃) 골프세트와 스키 5㎡이하의직물류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밍크코트와 밍크숄및 이와 유사한 고급모피제품도 사갖고올수있는것이다.

다만 통관할때 세관원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轉賣할것으로 인정될때는 통관을 안시킬수도 있다. 소위 보따리장사를 막기위한것이다. 휴대품에 대한 통관허용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재량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여행물품이 통관가능한지 여부는 세관장이 여행자의 신분이나 여행목적을 감안해서 판단토록 되어있다.

여행자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돼 국내도매가격의 10%에서 최고 90%까지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 관세를제대로 문다면 국내에서 사는게 오히려 싸다. 전자제품의경우 관세를 모두물면 해외취득가격의 5배~3배나 먹힌다.

여행자휴대품중 신변용품이나 직업용품등 기초적인면세품과 해외현지취득 가격총액 10만원이하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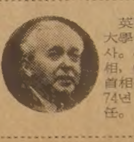
휴대품이 이번위를 넘어서면 일단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품목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던 통관제도를 내년3월1일부터는 포괄통관제도로 바꿔 과세대상 휴대품가격 총액이 50만원미만일때는 일률적으로 30%의단일세율을 적용하고, 5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해당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키로했다. 그만큼 통관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품목별 간이세율도 약간씩 조정했다.

美國도 포괄통관제도를 쓰고있는데 휴대품총액이 3백달러이하면 면세이고, 3백달러초과 6백달러미만은 10%단일세율, 6백달러 초과분은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名言

나 아니면 안된다는 獨善을 거부한다

해럴드·윌슨 〈1916~〉



英國의 政治家, 옥스퍼드大學졸업, 母校의 經濟學강사. 47년 애틀리內閣의 商相, 63년 勞動黨首, 64년 首相취임, 70년까지 재직, 74년 再任, 76년3월 辭任.

「나는 어떤 特定人, 나아니면 안된다는 獨善을 거부한다. 나는 그토록 英國을 위해 없어선안될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 × ×

任期를 3년이나 남긴채 폭탄적 사임서를 발표, 전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은 英國首相 해럴드·윌슨은 다음과같이 말한적이있다.

「나는 마르크스主義者는 아니다. 나는資本論 제2페이지에있는 註가 本文보다 더긴것을 보고 그것을 더읽는것을 중지했다. 프롤레타리아의 理念이란 난센스다. 나는 대중으로서 보다는 個人으로서의 人間에 더큰 관심을 갖는다. 나는家族에 더 큰관심을 갖는다. 모든행복이란 家族的인행복이기때문. 나는週末과 夏季休暇에 큰관심을 갖는다.」

그는 또告別記者회견에서 「나의 辭任理由중 하나는 내愛犬때문이다. 올들어 나는 그놈과 散策을 즐긴일이 세번밖에없다」고 농담했다.

윌슨은 反對派들이 「權力慾이강한 뛰어난 政略家」라고 비난했지만 깊은통찰력, 명석한두뇌와 政治的수완으로 근대영국사회주의 운동에 不朽의 공적을 남겼다.

閣僚生活 30년, 勞動黨首 13년, 首相재직 8년, 그는 半世紀에 가까운 年輪을 公人으로 보낸셈이다.

47세에 首相, 英國史上 최연소首相중 한사람이었다.

평소 그는 首相직은 2년만 하겠다는생각을 가졌다고.

결국 4배의 기간을 그자리에있었지만 信念은 어지간히 관철된셈.

老練과 圓熟의 경지에서 한창 일할수있는 還甲의 나이에 그는 물러섰다.

평화시 수상으론 최장기록을 세웠고 勞動黨출신 首相으로는 처음으로 재직중 사퇴하는 또하나의 기록을 남긴채. 「나는 祖國과 勞動黨에대해 내가 이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選擧를 통해 이자리를 차지할수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선 안된다는 분명한 義務를 느끼고있다」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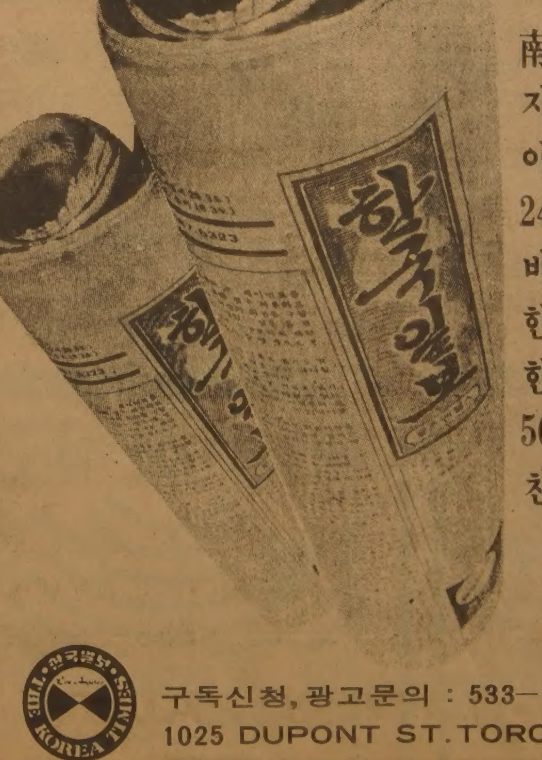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캐나다,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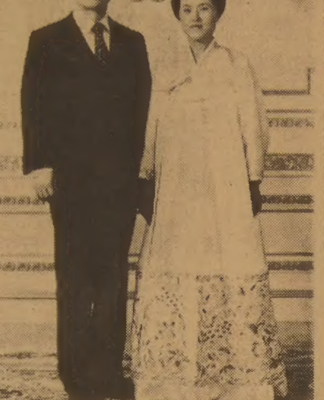
구독신청, 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우리모두 한배에 탄 同行者"

全대통령 新年辭 成長·發展위해 安定다져야

開放과 國際化향한 前進을 어려움·혜택을 함께나누자

全斗煥 대통령은 1일『성장과 발전을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安定』이라고 지적,『安定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배에 타고 같은 목적지를향해 간다는 同行者意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새해를맞아 新年辭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우리는 어려움을 나누는데서 부터 혜택을 나누는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울타리안에 살고,또 살아갈 공동運命體』라고 말했다.


壬戌새해를 맞는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

全대통령은 또『오늘의 성과에 自慢하지않고 오늘의 試鍊에 좌절하지도않으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때 비로소 소망하는 우리의 목표는 눈앞의 현실로 우리앞에 다가오게될것』이라고 말하고『따라서 제5공화국의 두번째 해가되는 82년은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는한편 그목표를 향한 노력을 倍加하는 해가 되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81년이 출발과 다짐의 해였다면 82년은 本軌道에 올라서는 해이며 다짐을 실행하는 해라고 정의하고『미진했던 부분을 더욱 깎고 다듬고, 前進이 있었던 부분은 그 進度를 더욱 빠르게 하면서 우리의 창조적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하겠으며, 이렇게함으로써 우리는 82년을 우리의 역사에서 전진과 발전을 기록하는 또하나의 뜻깊은 해로 장식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82년은 특히 우리가 제2의 跳躍을 이룩하는데 있어 큰 轉機를 마련해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라고 밝히고『이 계획의 출발에 즈음해 온국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계획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줄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세계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반드시밝지만은 않은것같다고 전망한 全대통령은『그러나 原油價와 原資材가격의 안정등으로 무역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좀더 忍耐와 自制 그리고 자신감을 일깨워 노력하면 금년안으로 제2의도약을 위한 성장의 기운이 반드시 본격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특히『미국및 아세안5개국공식방문을 포함한 각종 외교노력을통해 우리는 위대한 太平洋시대의 開幕에 접근해가는 新生공업국가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확인할 수있었다』고 밝히고『그것은 開放과 國際化를향한우리의 전진에 적지않은 活力素를 심어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인류 최대의 祝典인 올림픽과 20억아시아인들의 평화의 만남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 수 있게 된 일도 모두「세계속의 한국」으로의 힘찬 발돋움인것』이라고 회고하고『우리는 국제적인 大行事를 유치했다는 승리감보다도 우리의 안정, 우리의 成熟性이 전세계인에 의해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폴란드, 國政改革계획

共産黨해체, 새로운執權黨 창설

戒嚴令 3월해제

【빈·런던31日AP聯合=特】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는 오는 3월중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경제·사회등 폴란드 國政 전반에 걸친 改革계획을 수립하기위해 3개최고전략검토기구를 구성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바르샤바현지정보를 입수, 폴란드계엄당국의 검열을 받지않고 보도한 빈과 런던의 AP통신보도는 야루젤스키가 혁신적인 국정개혁구상을 1월초에 발표할것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를 사실상 새로운국가로 만들 이계획은 국민의 극심한 불신대상인 공산당을 해체하고 교회와 자유노조를 포함해서 국민의 광범한지지를 받는 새로운 집권정당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이보도는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폴란드정부 고위관리는 이계획대로라면 폴란드는 정치·경제·사회각분야에있어 새로운유형으로탈바꿈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民社·新政黨통합

高당수, 初旬께 合黨원칙구체協議

高貞勳 民社黨당수는 31일『新政黨과 民社黨은 통합에 합의,1월 초순께 兩黨대표들이 구체적인 合黨원칙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新政黨이 29일 상무위원회를열어 통합문제를金甲洙총재에게 일임했으며 民社黨도 이날하오 정치위원회를열어 통합문제를 만장일치로 당수에게一任,兩黨의 통합은 성숙단계에있다』고 말했다.

"韓·日간 友好분위기 살려 對韓經協문제 조속히解決"

스즈끼日首相 회견

【東京1日=聯】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새해1일아침 韓日간에 최근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만큼 이같은 분위기를 소중히 살려 韓日협력관계, 특히 對韓경제협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아침 연두기자회견을 통해『한국은 인접우방국가로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對韓경제협력문제를 해결하여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어 세계전체GNP의 10%를 차지하고있는 일본으로서 방위노력을 제대로 하지않고있다는 비판에 위협을주는 방위력은 절대로 갖지않을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대신 對外경제협력으로서세계의안정과평화에기여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

그는 세계각국과의 무역마찰에 언급, 일본으로서도 비관세장벽의 개선등의 노력을 벌이겠지만 무역수지의 흑자는 일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수없는 문제인만큼 상대국들도 생산성의 향상과 합리화등을 통해 일본국민들의 구미에맞는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일본시장을 개척할수있는 노력을 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이밖에 ①새해의 일본경제성장은 5·2%의 달성목표로하고 있으며 ②소련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日蘇평화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석 馬事會長에 李建榮씨를 任命

정부는 공석중인 韓國馬事會 會長에 李建榮씨(예비역중장·사진)를 1월4일자로 임명발령했다.

공관장級 10명 年初異動

留保규정대상자 10년이상海外근무자

정부는 金璟元 대통령비서실장을 駐유엔대사에,尹錫憲 유엔대사를 駐佛대사(內定)로 각각 임명키로한데 이어 年初를 기해 해외公館長級 10여명에 대한 異動을 단행할 방침인것으로 31일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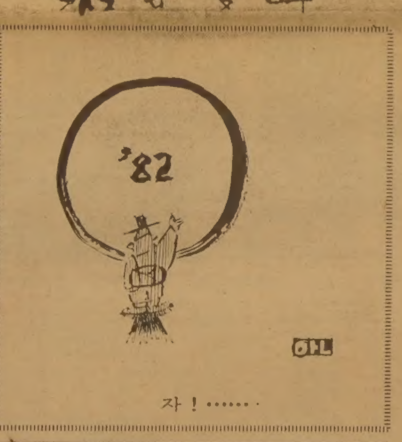
人事는 지난해 발효한 외무공무원법의 유보규정(2년)대상에 해당되어 留任됐거나 10년이상을 해외에서 계속근무해온 公館長級 10여명이 주요대상이 될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인사는 정부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펼칠 前向외교의 첫布石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번 인사에는 또 이미 귀국했거나 현재 외무부본부대사로 대기중인 古參級 외교관가운데 後進을 위해 勇退할 외교관도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측통은 특히 새 외무공무원법이 인정하고 있는 特任公館長제도가 이번 人事에 처음으로 적용될 공산이 클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측통은 또 구체적인 인사시기를 海外公館長회의가 개최되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오는 9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열릴 非同盟頂上회담을 겨냥한 對非同盟외교의 강화를 위해서도 年初의 공관장급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社會漫評



자!……

地平線

萬象이 새롭다. 모든 일을새롭게시작한다. 하루 아침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오늘을 그래서 三元이라 이른다. 한해의 첫 명일이요, 百事를 更新하는때인만큼, 서로복을빌며, 한해운수를 점쳐 보는 습속이 많음은 당연한 일이다. ▼예부터 정월 초하룻날에는 德談을 주고 받는다. 조선왕조 正祖때의 학자 金邁淳(1776~1840)이 쓴『洌陽歲時記』는 德談하는 거리풍경을 묘사하여,『장안의 남녀가 길에서만나 하례하는데, 이날의 얼굴 빛은 모두 번지르르하다』는 新年詩를 인용하고 있다. 보기로 보인 德談의 내용은『아들을 낳으시오(弄璋)』『승진하시오(進祿)』『병환이나으시오(除憂病)』『돈을 많이 버시오(獲錢穀)』등이다. ▼이런 德談의 내용은 그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지만, 대개는 남의 한해 소망을 알아서, 성취를 빈 것이다. 이 풍습은 지금의 새해 인사와 다른바 가없는 것이겠으나, 요즘 德談은 좀 두리뭉실하다. 웃어른을 뵈면 그저『오래 사십시오』, 동배끼리라면『소원성취하십시오』『복많이 받으시오』로 그친다. 이런 처지, 저런 계제를 가릴 것없이 두루 쓰일 수가 있으니, 편하면 편하고, 겉치레 같다면 겉치레 같다. ▼예전 사람들이 정성들여 德談을 하던 풍습은 사람의 말에 어떤 靈力이 있다고 믿던 古來의 관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은 복을 가져 오고, 저주하는 말은 재앙을 가져 온다고 믿는다. 예부터의 俗信에, 吉祥語·禁忌語가 많은 까닭이 이런데 있다고도하겠으나,「말을삼간다」고 할때의 속뜻이 처세와 교양이상으로 뿌리가 깊은 것임을 생각하게된다. ▼六堂 崔南善은 우리말로 정초를「설날」이라 하는 까닭을「삼간다」는데서 찾고있다. 설날의「설」은「몸을 사리다」「살금살금 걷는다」의「살」즉 謹愼·靜肅이란 짐작이니, 곧 한문의 愼日인 것이다. 이런 뜻풀이가 아니라도, 天·地·人의 三元이 새로와지는 날은 자칫날이기보다는「삼가는 날」이라야 옳다. 한마디 德談도 함부로는 말것이니, 삼가 한해의 복을 빌고, 삼가 한해를 다짐할뿐이다.

社告

矜持의 師道와 榮光의 師表를 歷史에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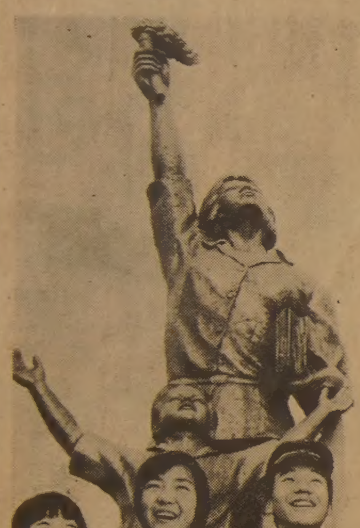
새해부터 本社 새事業으로

한국敎育者大賞 제정

民族의 스승찾아 온국민의 감사와 尊敬을

한국일보社는 새해를 맞아 한국敎育者 大賞을 제정, 시행합니다. 敎育立國의 국민적 희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마련하는 한국敎育者大賞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고 앞서가는 새 敎育者像을 확립하여 우리歷史에 민족의 스승으로 영원히 새겨두려는 뜻깊은 事業입니다. 이 大賞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敎壇을 지켜오는 우리의 선생님 모두에게 국민의 따뜻한 尊敬을 담아 바치는 情表로서 현재 혹독한 시련을 겪고있는 30만 敎職사회에 커다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한 민족의 장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가르쳐나가느냐에 달려있고,그 가르침의 成敗는 敎師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런뜻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볼때,우리 시대가 당면한 거의 모든문제의 궁극적인 核心이 바로 교육에 직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교육의 주역이어야할 敎師는 낮은 처우와 벅찬 업무,그리고 사회의 期待와 현실의 갈등속에서 좌절의 늪을 헤매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읍니다. 한국敎育者大賞의 제정이 의도하는 바는 이점에 있읍니다. 우리의 교육사회에서 失意와 敗北의 敎育者像을 몰아내고 自負心과 矜持,得意와 勝利의 敎育者像을 심어야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고마우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직자의 보람과 영광을 길이 지니게하고,사회의 감사와 존경이 구석구석에 퍼지도록 불을 밝히는 師道의 등불,그것이 한국敎育者大賞입니다.



우리는 이 賞을 통해 후미진 僻地에서,외로운落島에서,메마른 都會에서 교직의 孤寂과 울분을 天職의 召命으로 싸워 이겨내고있는 師道의龜鑑을 찾아내,그 옛날 훌륭하고 아름다왔던 師道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발전시킴으로써,민족의 스승의 이름들을 歷史에 새겨두려 합니다.

이 大賞은 전국의 초·중등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며 시도별로 선정하게될 수상자 선정기준, 심사및 시상등은 문교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나가게됩니다. 올해상반기안에 시상할 예정인 大賞의 세부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社가 거국적인 사업으로 마련한 한국敎育者大賞에 국민여러분과 교육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主催 한국일보社
後援 文敎部·大韓敎育聯合會·大韓敎員共濟會

謹賀新年
한국일보社 任職員一同

문예창작 소득稅 부담늘어

새해 공제없어져

새해부터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월1일부터 소설가의 원고료수입, 화가의 그림판매대금등 직업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연간 3백60만원의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대학교수의 TV출연료등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예창작소득에대한과세는 지난79년 세제개편때 채택됐으나 81년말까지 직업적 문예창작 소득에는 3백60만원의 소득공제를,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에는 과세유예조치가 취해졌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416)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謹賀新年

* A. CLASS LICENCE BODY MAN
* A. CLASS LICENCE PAINTER
* GUARANTEE WORKMAN SHIP
* 사고후 보험처리
* OVEN BAKED FINISH
* COMPLETE BODY WORK
* TOWING써비스
* 수리중 차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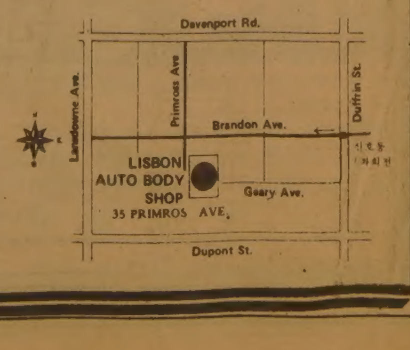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 능숙한 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暴風前夜의 정적…골란高原

아랍國선 "5일까지 원상회복"警告

合併무효 선언… 衝突 위기에

이、兵力집결 臨戰態勢 강화

【골란高原(이스라엘점령지) 31日精=聯】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합병으로 82년도세계대풍의눈이된 골란고원은폭풍전야의 정적에 싸여있다。화산호수면을 차고 허공에 치솟는 물새떼하며 낙엽이 흩날리는 벌판등 한적한 겨울정경 그대로이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군용도로를 왕래하는 분주한 지프의 행렬、점점이 보이는 군사기지、포신을위장한 전차행렬등이 이스라엘이 아랍세계와 대결하는 최전선임을 실감케해준다。

이스라엘은 67년제3차 중동전에서 『전략요지인 골란고원을 점령한이래 수십개의 군사·레이다기지를 건설하고 정예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그규모는 비밀로 되어있다』 고원을 둘러싼 주변에는전차대열과 텐트를친 군대의야영장이 즐비하며 병사들이소란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도보인다。전체가 지뢰밭으로 되어있는 초원에는 낙엽만이날리고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2월14일 골란고원을 합병한뒤 시리아의 공격에대비、1백대의 전차와 정예부대를증파、경계를 강화하여 언제 정면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분위기다。

골란고원은 1월5일을 전후해서 더욱 긴장이 가속될 것같다。

아랍권국가들이 앞장선 12월17일의 유엔결의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을 무효로 선언하고 1월5일까지 원상으로 회복토록 최후통첩이 나다름없는 결의를해놓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당사국인 시리아의 사드 대통령은 가담외상등고위대표단을 이끌고 12월22일부터 사우디、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북·남예멘등을 순방、對이스라엘응징책을 의논했다。

현재 골란고원의 31개 이스라엘정착촌에는 6천여명의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있다。이들은 골란고원의 전략적중요성에 비추어 합병을찬성하면서도 전쟁발발 가능성에 불안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아리다·코헨(25)이라는이스라엘인도 체르몬산을 가리키며 『저산 생활을 다시하고싶지않다。골란고원 합병으로 시리아를 격파시킬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산너머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로켓포공격을 안한다는 보장이없다』고 불안을 감추지못했다。

◇백조들의 가두시위 굶주림에 지친 백조들이 먹이를 달라며 눈에덮인 길을막고 주저앉아있다。최근 유럽지역에 불어닥친 한파로 서베를린의 백조서식지 하벨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백조들은 수난을 맞았다。【AP】

美、追加報復 검토
波군정彈壓 계속때

【로스앤젤레스30日UPI=聯】 레이건美대통령은 만약 폴란드에서의 군사탄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그가 29일발표한 7개항 對蘇경제제재조처보다 훨씬 가혹한 추가보복조처를 고려할것이며 이추가보복조처론은 전반적 對蘇교역중단및 수출금지등 모든 유형의 제재조처가 검토될것이라고 에드윈·미즈 백악관고문이 30일 말했다。

미국은 또 레이건 대통령의 對蘇7개항 경제제재조처를 강화、확대키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외상회의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른 美정부관리들이 말했다。

EEC、4일外相會談
對蘇·對波制裁등 논의

【런던·브뤼셀30日綜=聯】 구공시(EEC) 10개회원국들은 오는1월4일 브뤼셀에서 외상회담을열어 폴란드사태와 對蘇·對폴란드제재조치문제를 논의할것으로 30일알려졌다。

벡기에외무성대변인은 이날 긴급외상회의소집요청에 따라 오는4일 외상회담을 소집하기로 최종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소식통들은 EEC외상회담과는 별도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15개회원국외상회담이 오는 1월초순께 브뤼셀에서 소집돼 폴란드사태에 따른 미국과 유럽동맹국들의 대응책조정방안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레를 제외한 모든 EC회원국들은 나토에 가입돼있다。

한편 나토회원국대사들은 30일 회의를 갖고 레오니드·브레즈네프蘇聯공산당서기장이 최근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에게 보낸 서한을 검토했다。

美將星피납…伊당국 北部檢問所서
붉은旅團容疑者 4명逮捕

【로마31日綜=聯】 제임즈·도지어美육군준장납치사건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이는서류를 소지한 이탈리아 좌익도시게릴라단체『붉은여단』소속 게릴라용의자 4명이 이탈리아북부의 한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경찰소식통들이 31일 밝혔다。

애트킨즈 英副外相
1월10일 韓國방문

【런던30日綜=聯】 험프리·애트킨즈 영국부외상이 극동방문기간중 1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영국외무성이 30일발표했다。

극동지역을 책임지고있는 애트킨즈부외상은 한국방문외에도 4일부터 8일까지중공을、13~17일까지 일본을

人民日報 보도
美·中共관계 重大국면에
臺灣무기판매계획은 내부간섭

【北京31日綜=聯】 중공은31일 美·中共관계가중대한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이 臺灣에대해 추가무기판매를 계획함으로써 중국내부문제에 간섭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과의 대결까지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했다。

人民日報는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태도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돼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세네갬비아聯條約
갬비아議會서승인

【반줄30日綜=聯】 갬비아의회는 29일 갬비아와 세네갈을 통합、세네갬비아 연방을 구성하는 조약을 승인했다。

정원39명의 의회는 이날 야당인 국가회의당(NCP)소속의원중 3명이 퇴장한가운데 양국통합조약을 찬성32표의 압도적 표차로 비준했는데 퇴장의원들은 정부가 세네갬비아 창설문제를 NCP측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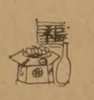
떡과 술

새해아침에는 歲酒와 歲饌을 차려 茶禮를 지내고 웃어른에게 歲拜를한다。지방에 따라서는 새해를 맞아 相慶도 하지만 日月神을 또한참拜한다。우리 민족은 오랜역사를 거쳐 오면서도 농경민족으로서의 자취를 아직 엿뵈게 하는것이 떡과 술을 빚어 차려놓고 조상과 日月神에 절하는 그풍속이다。

「떡」과「술」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우리와 같이 농경사회를 유지하면서 牧畜民族으로 긴세월을 흘러온 西洋사람들의 종교의식가운데서도 찾아진다。특히 기독교에서는「떡」과「포도주」가 하느님의「살」이요「피」라 하여 제단에 오른다。

洋의 東西를 물을것 없이 모두가 農事를 천하의 대본으로 삼았다는 하나의〈어벨르지〉가 찾아져 새삼 인류는 뿌리가 하나이구나 하는 유추에까지 치닫는다。

우리의 歲時에는 정월 초파일을「穀日」이라하여 이날 봄에 심을 곡식을 준비하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음력으로 과세를 하면 첫 節候가 대개는「立春」이 되므로 서둘러 농사준비를 해야한다는 뜻이 있었으리라)。또 正初에는 고양 할미(猫婆)가 하늘에서 내려와 上丑日(첫 소띠날)에 하늘로 올라간다고하는 지방民話가 있다。할미 고양이는 땅에 머물때 먹을것을 열흘치 마련해오는데 上丑日이 열흘안에 들면 그해에는 豊年이 든다는것이다。왜냐하면 아직 덜먹은 것을 그대로 땅에 두고 가기 때문이다。그러나 上丑日이 열흘뒤에 들면 가져온 열흘치를 다먹고도 땅에 있는것을 더 꾸어 먹다가게되므로 그해에는 농사가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모두다 農本之國에서 그해농사가 잘되기를 비는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歲饌에 豊年을 빌고 기후의 順調로움을 바라는것은 예나 지금이나、政策의 重輕이 어디에있든 다를바 없을것이다。그러나 近年에 와서 거의연달아 세계적으로「異常氣候」가 몰아닥쳐 특히 농사에 타격을 입혔다。氣象學者들은 地球가 백년주기로 寒冷乾燥해 지는데 지난 60년부터 우리가 그週期에 들어섰다는 것이다。冷害、그리고 한발이 尤甚했다는 보도를 되새겨보면 그럴듯한 예측이 아닌가한다。

소련은 연3년 농사가 망쳐져 폴란드에서 肉類를 너무 많이 사들인것이 오늘날의 폴란드사태를 빚었다고들 말한다。

새해에는 만사가 형통해야 하겠지만 특히 농사부터 잘 되어야 한다。日月神에게 빌어 좋은 기후가 계속되도록하며…。『새해 모두 복많이 받으세요』。

82년 国際気流

本社特派員들 各界의 碩学들과 対話 <1>

조지 워싱턴大學 페트로프博士 (上)

―워싱턴 曺淳煥특파원

美·蘇軍縮회담 큰效果없고 데탕트時代 再現도 힘들어

美의 「世界政治主導」는 향수에 그칠뿐

유럽反核輿論…83년후반까지 퍼싱·크루즈配置 어려워

1915년 러시아의 오데사에서 출생한 블라드미르·페트로프 조지워싱턴대학 국제정치학교수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소련문제 전문가다。

페트로프는 모스크바 민간공과대학을 졸업한후 미국으로 이민해와 예일대학에서 국제정치석사과정을 거친후 1965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페트로프박사는 71년부터 73년까지는 美국무성유럽문제 전문위원이었으며 현재에도 미국의 對蘇정책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고있다。

—새해에 접어들어 세계정치에 영향을주는 美蘇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작년 11월말 레이건 대통령이 내놓은 유럽 전역核군축안은 소련미사일을 축소하자는것이었지 미국것을 축소 하자는것이아니었읍니다。

유럽을 겨냥한 소련의 SS20미사일을 제거하는대신 83년하반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배치키로 되어있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소련은 이제안에 대화는 할것이나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입니다。

美蘇간의 큰변화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후 1980년초에 일어났읍니다。미국은 무역과 기술협력을 제약했읍니다。카터前행정부가 취한 이런 정책을 레이건행정부가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美전략무기를 증강하는 새요인을 추가했읍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는것외에 레이건행정부의 새정책은 소련의 직접 또는 간접지원을 받은국가들에 화살을 겨냥하는것 입니다。쿠바·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의 반란군 그리고 리비아등입니다。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후 결정적으로 사멸했다는 데탕트가 美蘇간에다시 되살아 날수는 없을까요。

▲레이건행정부아래서는 되살아나지 않을것입니다。

데탕트에 관해 좋은 정의가 내려진것이없지만 정참적외교관계가 유지되며 무역이 행해지고 군사위협이 없는상태를 데탕트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美蘇간에는 군사위협이 가로놓여있읍니다。과학과 문화교류는 레이건시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읍니다。

미국의 우방과의 관계도 데탕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미국은 유럽우방들과 일본에 군사력을 강화할것을 촉구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이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유럽에는 중립주의 내지는 평화주의가 팽배해있읍니다。

핵무기를 유럽으로 반입하는것을 반대하는 기운이 유럽에 높아지고 있읍니다。민주주의체제를 갖추고있는 유럽국가들은 여론과 국민감정을 무시할수가 없읍니다。핵무기를 반대하는 유럽여론이 어디까지 갈것인지는 알수없으나 미국의 퍼싱미사일이나 크루즈미사일이 83년후반까지 배치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反核여론이 이대로 가면 아마 서독도 미국미사일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입니다。그리스는 나토의 군사조직에서 프랑스처럼 탈퇴하여 비동맹적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을 띠고 있읍니다。

일본은 우방으로서의 전략적책임을 지는것을 거부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첫임기중에 美蘇대결이 완화될 전망이 없다는거군요。

▲美蘇대결에 변화가 일지않을것입니다。82년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되면 다소 변화는일지모르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될 가능성은 매우희박합니다。미국경제가 악화되고 실업률증가로 사회긴장이고조되면 외교에 관심은줄고 국내문제에 관심이집중될것입니다。미소관계에 약간의변화가 있을수있지만 기본적관계 개선은 84년 대통령선거 이후 85년까지 기다려봐야 할것입니다。

—이른바 레이건경제전망을 어떻게보십니까。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투자확대를위한 것인데 기업확장을 별로기대할수없읍니다。대부분의 업체들은 빚을갚기위해 저축해야하고 또 대기업들은 기업현대화보다 다른기업을 사들이는데 더 관심이 큽니다。경제전망은 회의적입니다。

—美蘇간에 긴장완화전망이 흐리다면 그것이 격화되어 핵전이든 재래식국지전이든 전쟁이 일어날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소련이 지난10여년동안 군사력은 강화해왔으나 경제사정은 미국보다 좋지 않습니다。소련의 우방들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할정도로 경제사정이 나쁩니다。다행히도 미국우방들의 경제사정은 좋습니다。유럽우방과 일본이 번영하고 있읍니다。한국도 경제가 개선되어갑니다。미국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는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우세가 힘의우세로 직결되어 군사정책면에서 소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소양국은 미소간의 핵전쟁을 원치않으며 소련은 나토나 일본 또는페르시아灣국가를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는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50년대、60년대초에 미국이 세계정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던시대에 향수를 갖는것같습니다만。

▲그런시대는 오지 않을것입니다。2차대전후에 50여개국이었던 나라가 현재는 1백70개국으로 늘어났읍니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수가 너무많습니다。

경제력의 우월이 주도권과 관계가 깊은데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어가지 않습니다。

제3세계에대한 경제지원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않습니다。

미국이 중요시하는 중동정책에서도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조차 정도의차는 있지만 반발하고있읍니다。

◇페트로프교수㊧와 대담하는 曺淳煥특파원。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실력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우디에 가장위협이 되는나라는 미국이라고 말했읍니다。이스라엘은 사우디의 적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있다는것을 이유로 내세웠읍니다。

—소련의 대외정책은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나갈것 같습니까。

▲소련의 대외정책을 진맥하려면 그들의 국내정치의 약점을 이해해야합니다。

소련은 1백20개의 異민족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조화가 잘 이뤄져있지않습니다。농산물생산의부족등 경제적곤란이 해결되지않고있읍니다。

증강되는 미국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의자원을 군비증강에 쏟아야합니다。

소련은 이론적으로는 폴란드에 침공할수있으나 이는곧소련의 약점을스스로 찌르는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제로는 매우어려울것입니다。소련이 나토국가들을 침공하려고하면 바르샤바 조약 동맹국들이 소련에 동조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루마니아는 바르샤바조약군이 루마니아땅에서 군사연습을 하는것마저 반대하고있읍니다。소련은 군사력을 그들 스스로에 의존해야 합니다。소련은 中蘇국경지대에 많은 군대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소련의 군사태세는 공세적이라기보다 방위적입니다。소련이 가까운 장래에 군사적공세로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海外토픽

中共版 엑소시스트
★毛두번째부인魂되살아나

지난1930년 국민당군에 의해 처형됐던 毛澤東의 두번째부인 楊開慧의 혼이 주기적으로 되살아난다는 미신이 中共일부지방에 퍼지고있다고。

福建省의 한신문에 따르면 『여자귀신을 불러내는미신에 그녀의 이름이 사용되고있는데「楊」의『혼』이 이미신에서 어떤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중공소식통들은 최근 서부 四川省에서도「楊」의 혼이『환생』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귀띔。【北京AP=聯】

★저격범의 어머니 호소
敎皇이여 용서를

지난 5월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2세를 저격、부상한 죄로 이탈리아의 한감옥에서 복역중인 저격범 메메트·알리·아흐자의 어머니가 교황에게 아들을 용서해 그가 벌이고있는 단식투쟁을 중지케해달라고 호소。

살인미수죄로 아스콜리·피체노감옥에서 종신복역중인 터키태생인 아흐자는 교황데 지난20일부터 단식투쟁중이라는것。【앙카라UPI=聯】

신설 新韓銀行長에
金世昌씨를 內定

올해 2월께 발족예정인 新韓銀行長에 金世昌(사진) 증권거래소 전무가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31일 관련업계에의하면 현재 설립내인가를 받아놓고있는 新韓銀行은 올 1월중순 행장을 비롯한 임원을선임、2월에 정식 발족해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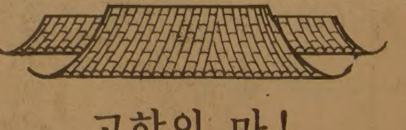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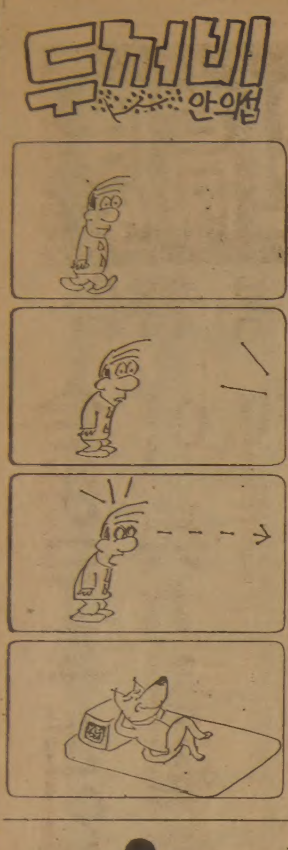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가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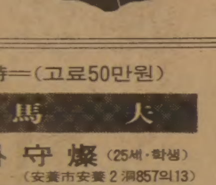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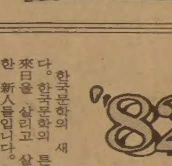
不遇청소년 就業 "惡條件"
"착취·人權유린 많다"
大檢、지난10월부터 전국서 34명拘束

불우직업청소년의 취업상태가 여전히 나쁘다。
종전까지 소위왕초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탈관계에 놓여있거나 폭력성향을띠던 이들의 취업실태는 당국의순화교육이후 다소개선됐으나 아직까지도 조직관리자의 지배하에 놓여있는것。
대검은 31일 전국검찰에내린 지시에서『이런상태에서 불우직업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임한다는것은 이들 조직관리자의 강력한 지배권행사에 따른 착취와 인권유린은물론 범죄의 위험하에 계속방치해 두는 결과가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대한 철저한 선도와 보호를 당부했다。
대검은 지난 10월13일부터 10월말까지 18일동안 전국적으로 6백47건에 5천1백59명의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조사했는데 이중에서 신문팔이와 구두닦이의 수입금을 갈취하는등 착취성격을 띠는 조직관리자(왕초) 明學權씨(29·구두닦이왕초·10년간 2천5백만원착취)등 34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5명을 현재 내사중에 있다。
현사입건된 왕초59명의 착취유형을보면▲구두닦이수입금갈취가 15명으로 가장많고▲껌팔이 수입금갈취 11명▲구두닦이 자릿세 갈취와▲가출소년 범죄행위강요가 각각 9명등이다。
대검은 불우직업청소년의 적극적인 선도와 보호를위해▲전국 검찰에 대해 각급검찰은 경찰에서 작성한 불우직업청소년의 취업조직 카드 1부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수사및 선도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및 선도·보호 활동을 철저히 감독하고▲불우 직업청소년들로 부터 금품을 착취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자유를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소위 왕초등 조직관리자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女암달러商 유인 칼로위협 現金털어

30일 하오2시30분께 서울鍾路區淸進洞92 서울호텔308호실에서 여자 암달러상 宋順子씨(28·서울江西區禾谷3洞292의11)가 투숙객을 가장한 20대 청년에게 칼로 위협당한후 현금 1백24만원과 50만원및 1백만원짜리 수표9장등 모두 6백24만원을 빼앗겼다。
宋씨에 의하면 범인은 지난29일하오 5시께 宋씨가장사를 하는 南大門지하로 찾아와『일본돈 2백만엔을 바꿀테니 생각이 있으면 서울호텔 308호실로「李만진」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달라』며 서울호텔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는것。
宋씨는 30일상오10시 호텔로 전화를 걸어 자칭「李만진」을 찾자『직접 호텔로찾아오라』고 말했다는것。
宋씨가 동료암달러상 吉用道씨(63·여·서울江南區蠶院洞342)와 함께 이날하오 2시30분께 현금과 수표등을 갖고 호텔방에 들어서자 범인은 문을 잠근뒤 주머니칼을 宋씨의 목에 대고 미리준비한 테이프로 두사람의입과 손발을 묶고 돈이든 가방을 갖고 달아났다。
宋씨와 吉씨는 범인이 달아난 직후 테이프로 입이 막히고 손이묶인채 호텔 안내로 내려와 몸짓으로 강도를 당한것을 알렸다。
수사에나선、서울鍾路경찰서는호텔방에서「부산海雲臺區蓮如洞756의78 許鍾喆(22)」로 되어있는 매혈증서와 사진1장등을 찾아내고 수사진을 釜山으로 내려보내는한편 범인들이 호텔숙박부에 남긴 부산西區東大新洞1의175「李만진」이란이름 을 쫓고있다。





監査院 수범공무원 10명에 勳章·表彰

監査院은 31일 韓建洙3局4課長등 10명에게 81년도수범공무원훈장과 표창을 전달했다。감사원 공무원의 敍勳내용은 다음과같다。
▲紅條勤政勳章=韓建洙(3국4과장)
▲綠條勤政勳章=金益永(1국4과장) 權銘泰(부감사관)
▲勤政褒章=沈炯允(기술5과장) 李鍾成(감사주사)
▲大統領表彰=盧宇燮(교육연구담당관) 曺錦徹 洪在基(이상부감사관) 柳重赫 金在濤(이상감사주사)

戰爭고아가 23년만에 美國처녀되어
새해아침 엄마찾아온다
마음은 벌써 꿈속의 母國에
이영숙… "한국뿌리 꼭 찾겠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아 서울로 떠나기앞서 들떠있는 플로리다·로빈슨·코와트양。입양당시의 사진을 놓고 양어머니 엘마·로빈슨여사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플로리다·로빈슨·코와트양(26)은 전형적인 미국인이다。외모로 보아 非白人계인것만 분명할 뿐 아메리카 체취가 물씬난다。하지만 세련미가 넘치는 이날씬한 미국아가씨의 입에서 외마디나마 한국말이 튀어나왔을땐 정말 의외였다。『서울에 가서 뿌리를 찾는게 저의 82년도 소원입니다』그녀의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더 정확히 말해 전쟁고아였던 그녀는 홀트양자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한지 23년만에 다시 고국을 찾게된 사람。자신을 낳아준 生母를 찾고 싶다는것이다。플로리다양은 자신의 한국이름을 기억하고 있다。「이영숙」이라는 예쁜 이름이다。그러나 그이상 알지는 못한다。그럴수밖에 없는것이 그이상 알려줄 사람이 없었고 3살때 미국에온 그녀 자신도 14살이 돼서야 어렴풋이 모계가 한국인임을 알았을 형편이었으니까 말이다。

母國오는 플로리다 로빈슨 코와트양
서울홀트海外양자회가「本籍」
出生비밀·孤兒院보낸것이해

그녀의 양어머니 엘마·로빈슨여사(68)가 그녀에게 전해준 입양경위는간단하다。엘마여사는 45세때인 58년겨울 3살짜리 한·미 혼혈아인 이영숙을 홀트해외양자회의 주선으로 입양、지금까지 키워왔다는것。그러나 엘마여사도 당시 이영숙 이름의 대한민국 여권의 넘버가 12532호이며 미국입국일자가 58년1월6일、그리고 떠날때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홀트해외양자회로 돼있었다는것외에는 아는것이 없다。
엘마여사는 이사실을 구태여 플로리다에게 알려줄 의사는 없었다。곱게 키우면서 노년의 고독을 달래가는것이 낙이었던만큼「출생의 비밀」을 털어놔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플로리다가 14살이되던해 엘마여사는 솔직할수 밖에 없었다。엄마와 피부색깔이 다른 이유가 무어냐고 플로리다는꼬치꼬치캐물어왔던것。
플로리다양은『한국인의 핏줄이란걸 안뒤부터 코리아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읍니다。생모가 어떤분인가、친아버지가 어떤분인가가 알고 싶었읍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는 호기심을 고히 간직하는외에 별도리가 없었다。
『고교때 우리반에 한국인 여학생이 전학해왔읍니다。정말 반가왔지요。나는 그 여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읍니다。그녀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기도했지요。지금도 그때배운 한국어를 한국인 상점에 가서 써보곤 합니다。깜짝놀라는 그들의 표정을 보는게 즐거워요』
플로리다양은 학교를 졸업한뒤 취직、지금 로스앤젤레스에있는 의류메이커 코레트회사의 중견사원으로 일하고있고 생활은 中上정도로 윤택하다。
플로리다양의 뿌리찾기는 23세때부터 구체적인움직임을 갖는다。그녀는 모든일을 자기책임아래 해결할수있는 어엿한 독립인간이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뿌리찾기란 쉬운일이 아니었다。플로리다양은 자신의 입양을 주선했던 홀트양자회등을 중심으로해서 생모를찾아 보려했으나 허사였다。
할수없이 캘리포니아州 상원의원 데이트·흘덴씨(현재 LA카운터 수석고등행정관의 자문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흘덴씨는 성의있게 플로리다양의 뿌리를 대신찾아주려는 일에 협조적이었다。그러나 결론은 역시비관적。
흘덴씨는『서울에 가서 직접찾아 보라』고 권유할수 밖에 없었다。

미국인체취 물씬… 3살때 入養
훤칠한키에 우리말 한두마디씩
母情의모닥불 올해엔 지펴질까

◇여권에박힌 少女 플로리다·로빈슨·코와트양이 23년전 미국에 입양갈때 여권에 붙였던 사진 모습。「이영숙」이라는 이름 그대로 전형적인 한국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그래서 플로리다양은 LA근교 컴비市에서 모시고사는 양모 엘마여사와 함께 새해 2일 서울땅을 밟게된것이다。
『제 생일이 55년11월25일로 돼 있어요。다음번생일에는 친어머니를 모시고 생일을 지내고 싶어요』
출국을 앞둔 플로리다양은 몹시 들떠 있었다。혼혈아인 자신을 키울 자신이 없어 고아원에 보냈다하더라도 원망할 생각은 없노라고 했다。동양사회의 전통과 사회풍습을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노라고 대범한 표정도 보였다。
『친어머니를 만나면 마음껏 껴안고 키스 해드리고 싶어요』미국시민인 플로리다양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의 표시는 이렇게 미국식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에는 한국적인 여성의 섬세함이 끊임없이 율동한다。
플로리다양의 생모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82년벽두 그어머니는 아름다운 서구형미인으로 성장한 딸의 포옹을 받으며 23년간 잊어버려야했던「모정의모닥불」을 다시 지필수가있을것인가。
【로스앤젤레스支社31日=邊鴻鎭기자】

'82 한국新春文藝 당선작 발표

社告

한국문학의 새 地平을 넓힐、82년 한국新春文藝 당선자를 발표합니다。한국문학의 튼튼한 기반을 이룰 이 새로운 얼굴들은 우리 문학의 來日을 살리고 살찌게할 신선한 生命素를 불어 넣어 줄 투지 만만한 新人들입니다。이들의 당선작품은 총3천5백20편(詩2천4백54편、小說3백34편、時調2백97편、隨筆2백94편、童話1백편、戲曲41편)의 응모작품가운데 수백·수천 對1의 숨가쁜 경쟁을 치르고 뽑힌 것으로 旣成文學작품들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팽팽한 실력이 만져지는 작품입니다。당선자와 당선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詩=(고료50만원)
馬夫
朴守燦(25세·학생)
(安養市安養2洞857의13)

▲小說=(고료1백만원)
母系史
李 麟(32세·교사)
(釜山市西區 岩南洞84의 1)

▲時調=(고료40만원)
江가에 앉아서
석성일(31세·승려)
(서울冠岳區南峴洞57圓覺寺)

▲童話=(고료40만원)
하늘낚시
朴美淑(20세·학생)
(光州市西區楊林洞20통 2반)

▲隨筆=(고료40만원)
겨울이야기
李淑子(28세)
(6128N. Kenmore C# 2047 Chicago, Il. 60625U.S.A.)

▲戲曲=(고료60만원)
撞球놀이
李炫[illegible](23세·학생)
(光州市西區美蓉洞2가47)

◇82년한국新春文藝 審査委員
▲詩…具常·黃東奎
▲小說…李範宣·河瑾燦
▲時調…金魚水·朴在森
▲童話…金耀燮·신현득
▲隨筆…[illegible]·金烈圭
▲戲曲…[illegible]

한국일보社

◇31일하오부터 서울역을 비롯한 각역에는 고향을 찾기위해 서울꾸러미를든 귀성객들로 붐볐다。30일과 31일 이틀동안 열차편으로 15만여명이 서울을 떠났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오늘 마이크때문에아주 화가났댔어요。"
"그애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저는 솔직한 관계를 원하거든요" —따르릉—
"마이크 전화다"
"제가 집에 없는척 하세요"

음식점의 대명사

근하신년

한국관

연중 무휴
* 최저가격으로 최고의 음식을 맛 보십시요.
* 단체손님 환영(회의실 마련)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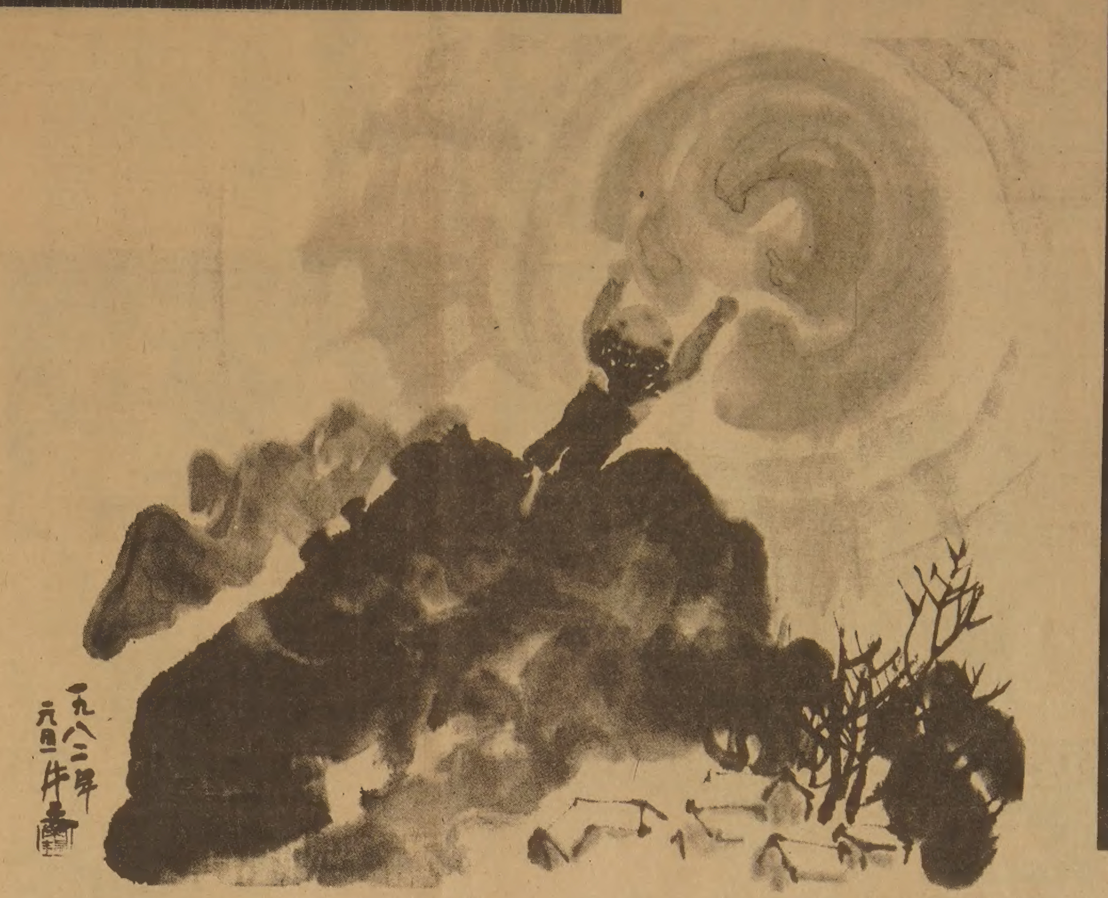
대표 : 나 옥 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새해아침 엄마와 함께 읽는 동화

찬란한 꿈

얏호! 새하얀 눈길 밟으며 뜨거운 해나라 다녀올래요

吳 英 民 지음
송 영 방 그림



『하나、둘、셋、넷! 하나 둘 셋 넷!』

어둠속에 힘찬 구령이 울려 퍼지고 있읍니다。새벽 일찍 등산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며 외치는 구령입니다。

『하나、둘、셋、넷! 하나 둘 셋 넷!』

성용이도 힘차게 외쳤읍니다。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칼날 같은 추위는 슬며시 달아 나고 몸에 열기가 올라 훈훈해 집니다。따라서 공해에 찌든 사람、전강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일찍 산에 올라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삼십분간의 운동이 끝났읍니다。사람 들은 짝짝짝 박수를 치고 헤어 졌읍니다。찌뿌드드한 몸을 깨끗이 풀고 새로운 체력 으로 오늘의 일을 위하여 산을 내려갔읍니다。그러나 성용이는 가지않고 계속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읍니다。해돋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돋이—。성용이가 새벽마다 산에 올라오는 것은 상쾌한 아침운동에 맛을들인 탓도 있지만 해돋이를 보기 위한 뜻도 큽니다。뜨는 해、그것은 큰 기쁨입니다。웅장한 멋입니다。화려한 꿈입니다。억센 전강입니다。크낙한 기쁨입니다。아、해!찬란한 아침 해! 그 해는 아직 시간이 좀있어야 뜰 것입니다。

『하나、둘、셋、넷!』

가볍게 뜀뛰기를하며 해를 기다리는데 아침아저씨가 올라 왔읍니다。산에서 사귄 아저씨입니다。어린것이 용케도 매일 산에 올라온다며 퍽 귀여워 해주는 아저씨입니다。성용이는 그 아저씨를 아침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아、미안 미안。제사를 지내고 오느라고 오늘은 늦었다』

◎吳英民씨略歷
▲26년＝黃海道鳳山출생
▲「學園」「主婦生活」편집장역임
▲62년＝소년한국일보新人文學賞수상。
▲펴낸책＝「처음부터 끝까지」「2미터 선생님」「개구장이박사」「6학년0반 아이들」「빨간신호등」「억세게 흐르는 강」등 20여권。

급히 올라와서 그런지 추운 날씨인데도 아저씨는 땀을 흘리고 있읍니다。

『아저씨、이리 좀 와 보셔요』

성용이는 아저씨를 판판한 바위 위로 모셨읍니다。아저씨는 어리둥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차가운 땅바닥도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려 세배를 했읍니다。

『오、친구야。너도 복 많이 받아라』

아침아저씨는 성용이의 두 손을 꼬옥 잡아 주었읍니다。

아침이 열리기 시작했읍니다。먼 앞산의 능선이 환해지더니 곧 찬란한 빛깔이 뻗어올랐읍니다。

『해가 떠오르는구나。오늘부터는 새로운 해다。경건한 마음으로 보자』

아저씨도 해돋이를 퍽좋아합니다。그래서 매일 아침、같이 보고 있읍니다。

해는 곧 떠올랐읍니다。장엄한 해돋이 입니다。떠오르는 아침 해는 언제 보아도 웅장하고 힘차서 가슴이 벅찬데 오늘 아침의 해는 새로운 희망을 듬뿍 품고 있어서 더욱 좋아보입니다。

『얏호!』

성용이는 해를향하여 크게 손을 흔들었읍니다。해도 환하게 웃으며 햇살의 손짓을 합니다。아、해!반가운 해!성용이는 평소생각하고 있던 것을 아침아저씨께 말했읍니다。

『아저씨、저는 크면 꼭해나라 여행을 할 거여요』

『뭐、해나라 여행?다른 별이라면 모를까 뜨거운해나라에 어떻게 가지?』

『지금처럼 겨울에 가면 괜찮을 거여요』

『하하하하。그렇구나。겨울 해는 뜨겁지 않으니까 겨울에 가면 되겠구나』

아침아저씨는 언제나 이렇게 성용이의 엉뚱한 말을 재치로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더욱 마음이 통합니다。

『해나라에 가서요、거기 돌을 주워 올거여요。아마 주먹만한 돌 하나만 가져도 우리나라의 연료는 문제 없을 거여요』

『그래、그렇게 해라。우리들은 못했지만 똑똑한 너희들은 해야지。꼭 해야한다』

아저씨의 격려에 성용이의 찬란한 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읍니다。사람들은 이미 달나라에는 다녀왔고 금성、화성에도 여행의 길을 트고 있읍니다。그러나 해나라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읍니다。그것을성용이는 이룩해 보겠다는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읍니다。참 장하고도 보람있는 꿈입니다。

『성용아、꼭 와요。여기는 신비스러운 것이 많단다。선물로 줄께』

해도 성용이의 마음을알고 더욱 뜨거운 햇살의 손짓입니다。서로 정답게 통하는 마음。성용이는 또 외쳤읍니다。

『얏호!야호야호 얏호! 내 친구야!』

이랬으면…

<가나다順>

나라·個人일 내 스스로…常識·원칙尊重…남에게 好意를

▲姜[illegible](남자배구 국가대표선수)＝맡은바 업무에 최선을다하는 성실성이 강조되어야한다。스포츠인은 성실성의 바탕위에 경제나 사회발전에 비례한 경기력향상과 지적성장에 노력해야 할것이다。

▲權[illegible](국회의원·民正)＝우선 친절한 마음자세가 필요하다。상대방의 고의아닌 실수는 너그럽게 감싸주어야한다。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괜히 잘난체하며 자신에 대한 본의아닌 실수에도 아량을 보이지않는 경향부터 고쳐야 한다。

▲金在[illegible](서울大工大교수)＝민주역량을 길러야한다。나라살림살이나 내주변의 조그마한일도 스스로 해버릇해야한다。마치 누가 다해줘야하고 꼭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金鍾[illegible](서울4하2683호 운전사)＝단속요원이있으면 질서를 지키면서 없으면 눈치를 살피며 육교밑을 무단횡단하고 차선을 위반하는등 우리들의 주위에서 수많은 위반사항들을 본다。

▲金鉉圭(국회의원·民韓)＝우리는 유태인이나 中國人을 능가하는 우수성과 근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있는 시온주의나 中華思想과같은 우리고유의 民族魂이 없다。우리도 화랑정신을 다시 찾으면 단연 세계제1의 민족이 될것으로 본다。

▲金榮大(약사·鍾路區鍾路4街5의5)＝쓰레기통을 옆에두고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고 가래침을 뱉는다。남의 발을 밟고도「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다。조금만 방심하고 어수룩해보이면 바가지를 쓰게되는등 이 모두가 양심을 되찾아야만 바로 잡힐 일들이다。

쓰레기통 옆에두고 休紙 버리는 버릇은 이제 그만둬야

▲南相龍(서울麻浦경찰서장)＝무엇보다도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겠다。사회구성원간의「공적약속」인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특히 지도층과 선인들이「원칙」을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야만 할것이다。

▲申[illegible](예총회장)＝질서를 지킨다함은 거리에서 차탈때 줄서기만 있는것이 아니다。모든문화예술 활동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李[illegible](외무부經濟국장)＝부동산투기로 잡자기 벼락부자가되는 사회구조、이런 현상도없어져야 할 것이다。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인이 1등국민이라는 인식을 內外에 과시하게되면 그만큼 國力의 파시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것이다。

▲李明洙(詩人·서울女高敎師)＝사람들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일이기도하다。그리고 사람사이에 尊敬感과 최소한의 常識이 존중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人間이 우선이고、人間이 가장 貴한 사회의 국민이 바로 一等國民이다。

▲鄭周永(現代그룹회장)＝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숭상해왔다。그러므로 모든일에 있어 예의를 그 으뜸으로 삼아왔으며 이에따라 질서가 세워졌다。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예의에 의해 눈과눈 얼굴과얼굴 가슴과 가슴을 통해 이루어진다。

▲鄭[illegible](신촌성결교회목사)＝어느사회나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고 정신적바탕을 이룬다。孔子가 信義를 강조한것도 그 위미가 깊다고 생각한다。우리국민은 부지런하고 착하지만 정직성이 결여된 경우와 더러 부딪치게된다。

▲朱[illegible](대한체육회사무총장)＝체육인은 특히 아시안게임、올림픽대회등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만큼 새로운 자세定立에 보다 노력해야 할것이다。스포츠의 기본요건인 파인플레이어 정신부터 함양해야 한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248-97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의 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4: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6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전화설교 274-5305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시탕및 침술,
[illegible]리치료, 부인병
[illegible]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중역간부모집 – 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추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착실하고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 : 742-0800
(렉스데일 & 이스링톤)

"송규석"씨 연락바람
충남 천원군 병천고등학교출신 김진영씨 요망.
연락처 : 몬트리얼(514)484-2906 조병화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3시30분~9시30분 ☎ : 598-1140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도너스샾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 ~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매매및 양도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버라이에티 스토아 매매(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 : 1+5년 아스킹 : $4,100
☎ : 221-2084(Mr. LEE)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BRACE BRIDGE ONTARIO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78년형 VAN(G.M.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급 매
뎀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계 6점.
냉면기계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물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DELICATESSEN & MEAT STORE FOR SAL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8,000(모게지가능)☎ : 742-3216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 ?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illegible]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구 혼

1957년생(26세), 키 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지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추리 냉동 원종성, 이인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번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집·방세·하숙

독신자 원함 $170(MONTHLY)
P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분위기좋은 방, 세나 하숙합니다. 교통편리, 큰창문
☎ : 532-9139(Mrs. 조)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꽃 집

정은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을 완치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illegible]
☎ : (B)536-6854 (R)743-075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풀꽃을 <18>

金梁順 作
鈴 畵

몇년이던가。화강 언니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 자신을 옭아매어 왔던 시간들、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보다 명확한 이유는 그녀를 용서함과 동시에 내가 수용해야 할 무한히 용서를 구해올 삶의 죄악들 때문이었다。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간을 그 인간이 범한 행위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지。행위는 잊고 인간만 기억해』

『용서해야 할 행위가 누적되면、그리고 탐욕이 탐욕을 낳듯이 죄가 죄를 퍼뜨리면 어떡하나요?』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질긴 증오를 도덕성에 근접시키려고 하는군。용서가 죄를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해봐。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죄를 낳게 되니까』

『당신은 그토록 관대할 수 있나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좌절당하는 고통 다음에 더 큰 사람이 솟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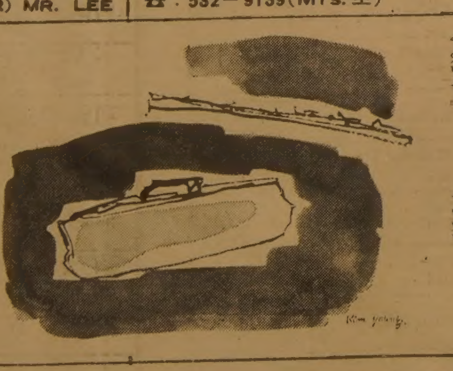
한 여자의 죽음이 한 남자에게 남기고 가는 것은 허망함 뿐인가。무엇이 죽음을 목전에 둔 두 사람을 저토록 관대하게 하였는가。한 여자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에게 더욱 커다란 사랑을 선사하였고 그는 갈등없는 사랑을 누구에게나 베풀 것이다。

나는 어찌하였는가。

매주 화요일 내게 수표를 던져주며 돈으로 여자도 음악도 간단히 사려했던 탐욕뿐인 남자에게 너무도 쉽사리 무너져 음지의 안락을 택한 화강언니。잠적했던 그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그녀가 가졌던 온화한 아름다움도、향기도 잃고 다만 천박하고도 공허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그 사람을 사랑해? 아니。비굴하기까지 한 웃음을 거두며 그녀는 단호하게 부정했다。그렇다면 이 생활은 부당해。알아。외롭게 공부하고 기다린 날들이 억울해。고독하고 가난한 여자는 쉽게 이렇게 된단다。하지만 명례야。넌 떠나。가서 공부해。내가 도와줄께。넌 풀꽃을 불어。다시는 불지 않겠어。

그녀에게 내뱉은 말이 나를 향한 암시였던가。나는 그 이후 풀꽃을 불 수 없었다。나는 악보에 적힌 음악을 정확히 표현했으나 그 음악에 나의 열정、나의 섬명、나의 혼을 부어넣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나의 연주는 먼저 내 자신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더 이상 풀꽃을 불 수 없었다。그것은 언제나 손벌리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나는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문득문득 풀꽃소리의 환청을 들으면 고통은 무섭게 살아나고 이제쯤 그것을 불 수 있지는 않을까。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풀꽃을 입가에 대어보았으나 정녕 연주할 수는 없었다。



배반을 두려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여자의 당연한 고통처럼。

나는 쫓기듯이 도시를 떠나왔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 내 삶의 응결된 이기성을 고통스럽게 확인해야 했다。나는 그에게서 나의 죄를 지적당하고도 평화로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방에서 풀꽃을 꺼냈다。케이스를 열자 어둠 속에서 숨죽여왔던 [illegible] 빛나는 풀꽃이 거기에 누워있었다。

『당신을 위해、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위해 연주하겠어요』

문밖에 계신 어머니。

누운 바다에서 흰 파도는 일직선을 그으며 질주해오고 나는 나를 비워가며 나의 연주가 내게 충만해오며 그 충만함이 넘쳐 그에게로、바다로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눈으로는 점점이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며。

<끝>

流星의 賦 <27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⑤

『그러나 그에게 지조(志操)가 있을테니 어찌』

수장의 말이었다。

요시오까가 대답했다。

『그에겐 물론 충군애국의 정신이 있읍니다。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매양 마찬가질 겁니다。오늘날 우리 일본에도 충군애국의 정신이 있지만、만일 그 주군(主君)으로부터 또는 상사、동배로부터 천시 당하고 괄시를 받을 때 지조를 계속 지닐 사람이 있기나 하겠읍니까。오늘날 우리 주변에 낭인(浪人)이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도 그러리라곤 짐작할 수 없지 않소』

소로리의 의견이었다。

『사람의 정은 마찬가집니다。기회를 주기만 하면 혹시 가능할지 모릅니다』

타니유끼찌의 말이었다。

『소로리 어딴가』

수장이 물었다。

『욕심은 납니다만、그리고 그만한 인재를 포섭했다면 태합전하께서 여간 좋아하시지 않을테고』

소로리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소로리가 꾀를 내 보려므나。소로리의 지혜를 이럴 때 써먹지 않고 언제 써 먹겠나』

하고 수장이 소로리를 건너 보았다。

『태합전하께서 명령만 있다면야』

『관동에 가 계시니、그 명령을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

『명령을 받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낭패가 아닙니까。그러니 대합전하가 돌아오시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죠』

요시오까도 한 말 거들었다。

『병법으론 어떤게 좋겠는가。소로리』

수장은 언제나 이처럼 성이 급하다。

『일단 결정한다면 방법이야 있겠죠』

『한번 들먹여 봐』

『첫째 미인계(美人計)、기막힌 미녀를 안겨 흉허 정이 들도록 해 놓으면…』

『그런 사람이 빠질만한 미인이면 형님이 가만 두지 않을걸?』

하고 수장이 웃었다。수장은 다시 없는 호색이어서 미녀라고 하면 휘하 장군의 부인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거야 별문제 없지요。태합전하를 한번 거치고 그 총애를 잃은 여자 가운데의 제일미녀를 뽑으면…』

『그것도 그렇겠군』

수장이 동의했다。

『미인계 갖고 안될 경우엔 금은보화를 안겨보지요 뭐。금은보화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을테니까』

소로리가 자신있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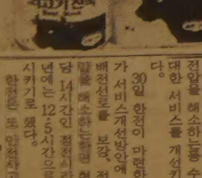
『그런데 이곳에 붙들어 두는데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 사신들이 자기들 일행 가운데의 한 사람을 까닭없이 두고 떠나겠는가』

수장의 이런 의혹은 당연했다。

그러나 소로리는 거침이 없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읍니다。칭병(稱病)을 하게 하는거죠。병이 났다고 하면 어떤 의원(醫員)의 집을 택하여 객사에서 그리로 옮기는 겁니다。중병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사신들인들 어떻게 하겠읍니까。도중에서 죽어도 좋으니 데리고 가겠다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병이 나으면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으니까요』

매기쇠고기 진국 韓瑞食品서 개발



스위스 네슬레 합작회사인 한서식품이 쇠고기와 식물성 영양소만으로만든 서구식 자연조리식품인 매기 쇠고기진국(사진)을 개발、26일부터 시판에 나섰다。

매기 쇠고기진국은 국과찌개、볶음、조림、빈대떡등 거의 모든 음식조리에 쇠고기국물로 사용할수 있는데 10g들이 한봉지로 2인용 쇠고기국이나 찌개를 끓일수있다。

가격은 10g짜리 80원、85g짜리가 6백50원이다。

내년중 低電壓해소 韓電 서비스개선

한전은 내년에 15만호의 저전압을 해소하는등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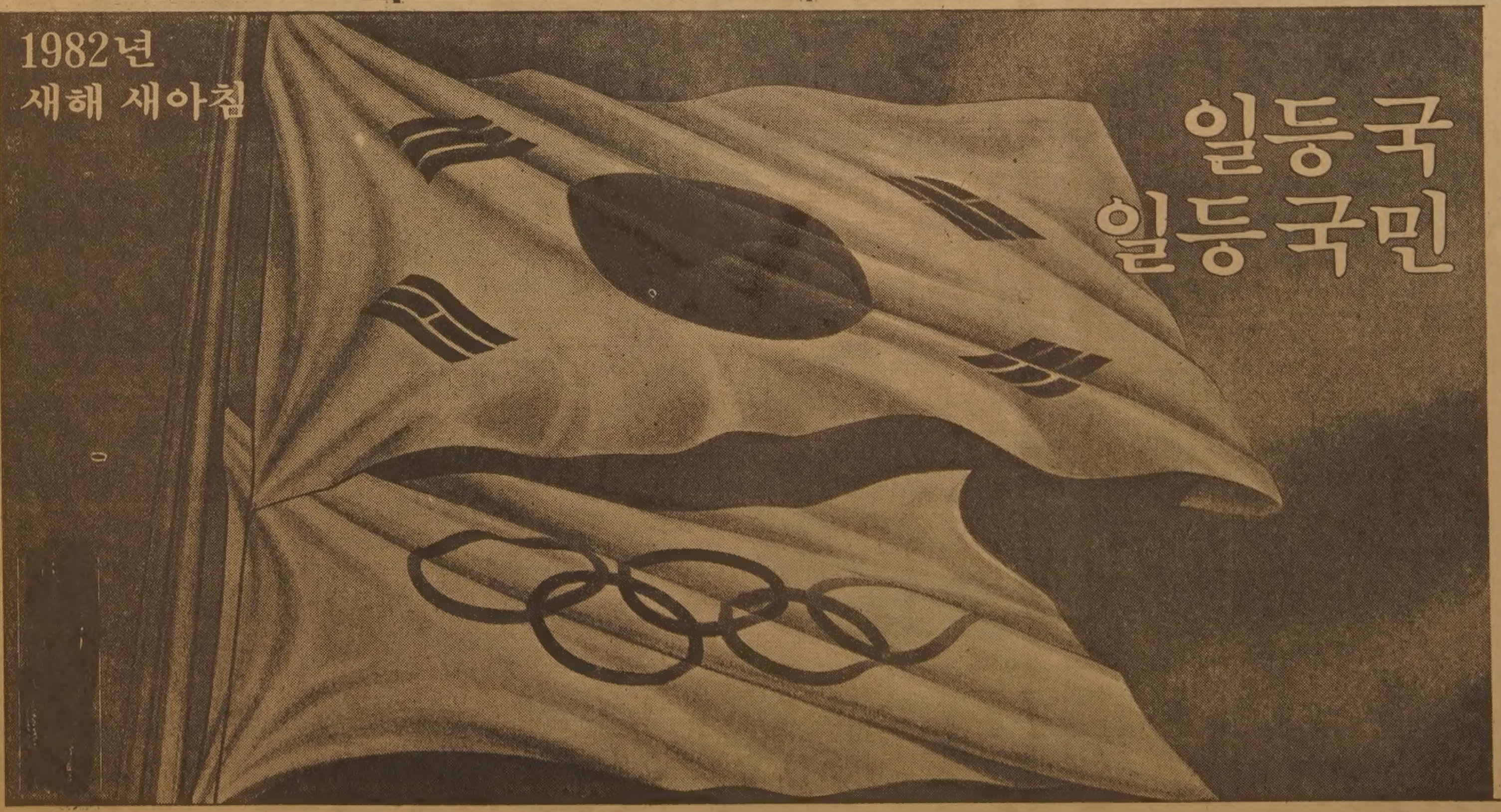
30일 한전이 마련한 수용가 서비스개선방안에 따르면 배전선로를 보강、전국 저전압을 해소하는한편 현재 호당 14시간인 정전시간도 내년에는 12.5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한전은 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1천5백km의 배전선로를 絶線化하는 한편 수용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화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화는 현재의 10개소에서 仁川 水原지방을 포함、1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謹賀新年

반 석 교 회 목 사 : 양 세 주 746—5010	제 인 파 크 꽃 집 여 정 웅 769—0609	RASAN GALLERIES 이 용 석 595—0836	샘 터 의 상 실 606 BLOOR ST. W. 535—4441	현 의 상 실 현 혜 자 769—1559
동 부 한 인 장 로 교 회 목 사 : 홍 순 관 530—1142	빌 라 델 비 아 장 로 목 사 : 김 경 진 281—5706	호 남 향 우 회 회 장 : 장 영 대	신 세 계 여 행 사 김 창 범 536—2155	HUNTS BAKERY 정 효 기 769—4347
충 현 교 회 목 사 : 박 경 남 281—7772	임 송 학 태 권 도 장 247—7577	FIRST오 토 SERVICE 최 이 락, 김 한 호 532—0200	바 우 종 합 광 고 송 관 현 535—0647	크 로 바 프 린 팅 위 정 남 251—9587
런 던 한 인 교 회 목 사 : 신 용 규 473—5257	박 종 수 태 권 도 719 YONGE ST. 961—7100	ALLEN오 토SERVICE 정 용 태 762—3247	보 광 한 약 방 김 남 집 439—6717	칠 성 인 쇄 소 이 인 용 789—7351
미 시 사 가 연 합 교 회 목 사 : 유 환 진 276—5163	볼 링 협 회 정 용 필	사 진 협 회 회 장 : 이 인 덕 535—7772	HILL TOP AUTO BODY 자 동 차 수 리 김 상 수 13367 YONGE ST. TOR. 773—7777(B)	서 울 사 대 부 고 회 장 : 백 이 삼 251—6578
NOOR ES 도매상 777 WARDEN AVE. #7 757—9271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최 호 권 363—3883	ACCOUNTING & TAX 공 인 회 계 사 이 영 철 239—6802	댄 스 교 습 지 도 : 김 유 수 742—4208	김 미 영 무 용 연 구 소 김 미 영 465—0762



새해 福많이 받으십시오.

종 영 사 : 이 상 훈
부총영사 : 박 영 철
영 사 : 조 흥 래
부 영 사 : 박 종 선
〃 : 이 순 천 및
직원일동

토론토한국총영사관